



[인터뷰] 한반도 공존의 길을 묻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03



Economy

코스피	2515.38 (0.00)	코스닥	875.95 (0.00)
금리 (미국 3년)	2.22 (+0.02)	환율 (원/달러)	1068.00 (-8.60) (1일)

###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발 빨라진 남북경협 움직임에 재계도 분주

# 현대아산, 심층 논의·두산, 전력사업 타당성 검토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면서 재계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대북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그룹의 현대아산은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심층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업계도 대북사업 테스트 포스(TF) 구축에 나섰다.

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에서 대북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아산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고, 경협 재개에 대비한 심층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달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앞서 지난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남북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사전 조치 성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에 활용되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이자 금강산관광의 주사업자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공단에서 호텔과 면세점, 식당, 주유소 등 지원시설을 운영해 온 만큼 이번 정상회담 이후 협력 본격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그간 대북사업이 재개된다는 희망 아래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며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메뉴얼은 만들어 놓은 상태로, 지금은 심층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경협 관련 대비책 마련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

공사 사장도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발전소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두산그룹은 북한 발전소 전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77.7%인 4조4647억원을 발전사업에서 얻은 만큼 대북 발전사업에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장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발전·송배전용 전기장비를 생산하는 현대일렉트릭 등도 북한 발전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도 물론 작업이 한창이다. 선봉에는 현대건설이 설 것으로 봤다. 현대아산의 2대주주인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정주영 체육관,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다양한 북한 내 공사 경험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우건설의 경우 경험 수주를 목표로 SOC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韓·日·中 정상회의 日 도쿄서 9일 개최

한국, 일본, 중국이 오는 5월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수 주내에 치러질 북미정상회담 장소 중 하나로 판문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9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6년 만"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국빈으로 방일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의도 갖는다.

김 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특히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번이 7차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이다.

한·일·중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노동을 새로 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韓, 철강 관세폭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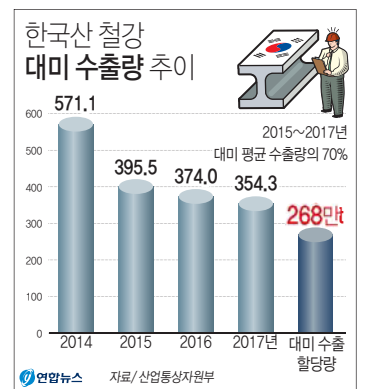
美, 고율관세 면제 확정 업계 "타 국가 지켜보아야"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백악관은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합의의 골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중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철강업계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미 통상당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성호 기자 ysw@

## 삼성·롯데 총수, 이재용·신동빈으로 바뀐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네이버 이해진 총수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했다. 30여년 만의 일이다.

이들이 지배구조 정점에서 주요 임원의 선임과 투자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을 네이버의 총수로 유지한 것도 개인 중 회사 지분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이 높다고 판단

했다. 공정위는 1일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2면>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최다출자자는 이근희 회장이지만, 지난 2014년 5월 입원 후 현재까지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총

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 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롯데는 기존 동일인의 지분 요건 및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년 동안 그룹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동일인 지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이 GIO는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개인 최다 출자자이고 이사직 등을 사임했음에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외 신기술 및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GIO라는 직책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기술기업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대기업 순이익 1년새 2배 꺾춤... 쓸림 현상은 심화

60대 기업 매출 5년만에 흑자 상위 5개 기업 경제력 집중 삼성·SK·LG가 74% 달해 한국GM 판매감소 13계단 뚝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2018년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하뉴스

국내 대기업집단의 매출이 지난 해말 기준으로 5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의 당기 순이익은 1년 만에 2배 늘어났다.

하지만 상위 5개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지속됐다. 삼성과 LG, SK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60개 대기업이 기록한 당기순이익의 74.1%에 달했다. 같은 대기업집단이라도 상·하위 그룹의 차이가 벌어지는 등 대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경기 악화, 자동차 판매 부진 등 여파로 일부 대기업의 자산·매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 5조원 이상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지난해 12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임금·물가·규제 대상이 되며 비상장사 중 중요 사항·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 중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 ◆자산 늘고 부채 비율은 하락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196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57개 기업보다 124조6000

억 원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자산 총액은 32조3000억 원에서 32조8000억 원으로 5000억 원 늘었다.

카카오는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자산 순위가 50위에서 39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49위에서 38위로 꺾춤 뒤편다. 반면 한국GM은 국내외 경기악화에 따른 판매 감소 여파로 41위에서 54위로 13계단이나 떨어졌다.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지난해 30개 지정집단(1653조 원)보다 104조4000억 원 늘어난 1757조4000억 원이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지정집단(76.0%)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71.2%였다.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늘어난 대우조선해양(-2,492.4%p)과 대한항공 부채가 줄어든 한진(-207.0%p) 등이 많이 감소했다.

### ◆반도체 호조로 대기업 순이익 100조원 돌파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매출액은 135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지정집단

(1233조4000억 원)보다 126조1000억 원 증가했다.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늘어난 22조7000억 원이었다.

삼성·SK가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각각 34조6000억 원, 32조2000억 원이나 늘었다. LG도 가전 등 주력산업 판매가 늘면서 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롯데는 롯데쇼핑 회계기준 변경으로 매출이 2조2000억 원 줄었고 대우조선해양·금호아시아나 등도 매출이 감소했다.

삼성·SK·LG 등은 반도체 호조세로 매출이 늘면서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원화 강세와 해외법인 실적 악화로 순이익이 3조8000억 원 줄었다. 한국GM도 순이익이 5000억 원 줄었고 부영도 분양주택 수익이 감소하면서 6000억 원 줄었다.

### ◆대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대기업 간 자산·매출의 쓸림 현상도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전체 자산에서 상위 5개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이 차지하는 비중은 53.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53.0%보다 0.4%p 상승한 것이다. 상위 5개 집단의 매출액 비중도 지난해 56.2%에서 올해 56.7%로 0.5%p 높아져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상위 5개 집단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70.5%에서 67.2%로 줄어 들었다. 자산 대비 매출·순이익 성과 지표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 28개 집단의 자산 대비 평균 매출액은 0.626이었지만 상위 5개 집단은 0.73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자산 대비 평균 당기순이익도 하위 28개 집단은 0.042였지만 상위 5개 집단은 0.064에 달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20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상위 20개사)

(2018. 5. 1. 기준, 단위: 조 원, 개)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		자산총액(공정자산)		
			2018	2017	2018	2017	
1	1	삼성	이재용	62	62	399.5	363.2
2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6	53	222.7	218.6
3	3	에스케이	최태원	101	96	189.5	170.7
4	4	엘지	구본우	70	68	123.1	112.3
5	5	롯데	신동빈	107	90	116.2	110.8
6	6	포스코	(주)포스코	40	38	79.7	78.2
7	7	지에스	허창수	71	69	65.0	62.0
8	8	한화	김승연	76	61	61.3	58.5
9	10	농협	농협협동조합중앙회	49	81	58.1	50.8
10	9	현대중공업	정몽준	28	29	56.1	54.3
11	11	신세계	이명희	39	37	34.1	32.3
12	12	케이티	(주)케이티	36	38	30.7	32.1
13	13	두산	박용근	26	26	30.5	30.4
14	14	한진	조양호	28	34	30.3	29.1
15	15	씨제이	이재현	80	70	28.3	27.8
16	16	부영	이종근	24	22	22.4	21.7
17	17	엘에스	구태희	48	45	21.0	20.7
18	18	대림	이준용	27	26	18.7	18.4
19	22	에스-오일	에스-오일(주)	3	2	15.2	14.0
20	21	미래에셋	박현주	38	41	15.0	15.2

## 이재용 총수 지정... 삼성 "달라지는 것 없다"

이건희 물러난지 4년 만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삼성 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진희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2014년 5월 이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지 4년 만이다.

삼성도 동일인이 변경됐지만 그룹 경영이나 이 부회장의 역할에는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공정위는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대기업집단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해 삼성의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인 또는 법인을 일컫는 말이다. 대기업 총수와 사실상 같은 의미다.

중전 동일인(이진희)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 및 조직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가 삼성 동일인을 변경한 것도 "이 회장의 와병으로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공정위에 이 회장 건강상태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도 제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에서 계열회사 임원 변동, 주요 인수합병(M&A) 등 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도 이 부회장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도 동일인 변경에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계열사 변화가 거의 없고, 이 부회장의 그룹 내 역할도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롯데총수 인정' 신동빈, 원톱체제 굳혔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유리할 듯 신동주, 회사 계열사 편입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롯데는 신동빈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정위 발표 관련해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법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동안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롯데는 공정위가 동일인을 신 회장으로 변경하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 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안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110조8000억 원에서 올해 116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속회사도 90곳에서 107곳으로 늘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 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계열사로 편입됐다.

/박인용 기자

**3일만 기다려주세요**

더 나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위한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5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18년 5월 5일(토) 00시~  
2018년 5월 7일(월) 24시

우리은행  
금융거래 일시중단

체크카드를 포함한 자동화기기(ATM),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우리은행의 모든 거래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필요한 현금 미리 준비

체크카드 사용 불가 (단,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

중요한 자금이체 사전 송금 완료

금융거래 중단 관련 전용 상담센터 : 1811-5000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주세요.

우리은행 WOORI BANK



1953년 7월 이후 가장 첨예한 안보 위기의 해로 점쳐졌던 2018년이 '평화의 첫 발'로 이름을 바꿨다. 5월에는 장성급 회담, 가을엔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 종전으로 인한 평화 체제 구축과 철도 유럽 여행이 입에 오르지만, 과거를 교훈 삼아 경계를 늦추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메트로신문은 국방과 금융, 남북 경협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숨은 의미와 전망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한반도 공존의 길을 묻다 ① 신원식 前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비핵화 약속’ 이행구조 만들고 선보상 금지·주한미군 유지해야”

“핵 문제에 대한 본질이 후퇴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과격이란 말입니까?”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같은 원칙이 합의문에 없어, 김 위원장이 앞으로 북한 내부에 어떤 약속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북한 정권은 대외적인 약속은 어겨온 반면, 내부를 향한 약속은 어기지 않아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만난 신 전 본부장은 북한이 수차례 어겨 온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합의문 본질을 봐야 한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은 시작부터 끝까지 과격적이었다. 이전 세대 실세 축출과 핵 개발 등으로 내치 기반을 갖추고, 그 과정에서 예상된 유엔 제재를 평창 올림픽 참가, 핵경제 병진노선 마무리와 경제건설 총력 결정,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북미대화로 풀어나가는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은 것 아닌가.

“큰 그림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과격적이라는 말인가. 형식만 과격이지, 합의 내용은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번 회담은 내용이 별것 없으니 형식으로 연출한 쇼다. 회담 주인공이 회에 자신없어 반찬만 많이 준 꼴이다. 1·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끈다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였다. 이번 회담 결과를 보라. 1항이 남북관계 개선, 2항이 군사적 긴장 완화다. 북한 비핵화 이야기는 3항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문 꼬트머리에 있다.

북한은 2016년 7월에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원칙’

美 비핵화만 요구... 5월 장성급 회담 ‘시점’ 잘못 北의 비핵화 실현되면 평화체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와 ‘남한 위협할 핵’ 장기적으로 유지 할 가능성 높아 핵폐기 안된 상황서의 종전선언, 제2의 월남 우려

’을 발표했다. ▲미국 핵무기 모두 공개 ▲한국 내 핵무기 철폐와 검증 ▲미국의 핵 타격수단 비전 개 ▲북한에 대한 핵 미사용 약속 ▲미군 철수 선포다.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핵확산방지조약)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한다고 약속했다. 이미 남·북·미·중·러·일 6자가 모여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했는데, 이번에 공동목표를 확인했다고 한다. 더 멀리 19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했다. 핵 폐기 문제는 합의문에 가장 약하게 적어놓고, 보상은 한국이 화끈하게 주는 내용인데 왜들 감동 받는가.”

-결국 지난해 한·미·일이 합의한 북한 비핵화 원칙은 이번 회담에 반영되지 않은 셈인가.

“그렇다. 당장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5대 원칙을 봐도 스스로 핵 폐기한다는 말은 없다. 미국의 비핵화만 요구한다. 보상을 미리 주면 누가 핵 무기를 없앨까.”

-합의문에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한다’는 부분이 있다.

“너무 애매하다. 9·19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하면 되지 않나. 북한은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도 핵 배치 안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것. 이 공동성명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회담과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

다고 하면 깔끔하잖나. 13년 전 합의 내용을 되새겨볼 줄 알아야 한다.”

-일단 5월 중 장성급 회담이 예정돼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비무장 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논의할 것 같은데, 이전에 잘 안 된 경험이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논의 시점부터 잘못됐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지 살펴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도 늦지 않다. 서해가 평화수역이 되면, 북한 어선이 인천 앞바다까지 올 것이다. 그런데 어민들은 북한군이 고용한다. 소속이 북한군이다. 배에 북한군이 한 명씩 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북한이 정말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제협력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속했다. 북한이 비핵화 해야 대북제재를 풀고, 그래야 경협을 하지.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평화협정 체제 만들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면, 경제·사회적 교류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다. 북한의 목표가 적화통일인 상황에서 혜택만 받고 나머지는 해주기 싫을 것이다.”

-최대 화두가 종전인데.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의 안전 확보’라고 했다. 나중에 국무부에서 기자들이 ‘그럼 한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은 신경 안쓰냐’고 하자 얼버무렸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환영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ICBM 시험 발사를 안하고, 테러단체 등을 통한 핵무기 확산도 안 한다고 해서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핵은 장기적으로 놔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폐기 관련 중요 목표 세 가지는 ▲북핵 폐기 범위가 ‘모든 핵’이고 ▲선 보상 금지하고 ▲주한미군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에 절대로 보상을 먼저 줘선 안 된다. 핵이 폐기된다 해도 북한에는 5000t의 생화학무기가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 핵이 아니라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존재한다. 이 견제장치가 사라지면, 한국은 북한의 사소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위험한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투자 하겠나.”

### ◆“종전은 뒤집으면 그만... 결과를 믿어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다면, 올해 예정인 종전 협정에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

“북한 핵 폐기가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제2의 월남이 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올해 안에 북핵이 폐기된다 해도 재래식·화학무기는 여전히 있다. 북한이 평화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천 번 도발해 온 북한 말만 믿고 종전 선언을 먼저 하면, 우리가 훨씬 위험해진다. 정전 65주년이라는 의미에 매달려선 안 된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약속 이행 증거는 김 위원장이 내부에 하는 약속 내용에 달렸다고 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핵물질 생산만 못하게 하면 됐다. 하지만 이미 생산된 핵무기는 어디에 은닉할지 모른다. 미국도 안다. 이제 와 사찰하기엔 북한의 능력이 고도화됐다. 대안은 세 가지다. ▲NPT와 IAEA 복귀를 위한 자진신고 외 지역의 제한 없는 사찰 ▲사찰 과정에서 핵물질·계획 잔존 확인되면 다시 국제제재 시작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감시 조항 등이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깰 때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뒤에 도와주면 된다.”

-이번 합의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했는데, 동북아 정세에 영향이 없다고 보나.

“정세는 바뀔 수 있다.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간단하다. 지금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 16개국에 일본 정부 승인 없이 일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정전이 종전협정으로 바뀌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이 없어진다. 주일미 군지위협정을 새로 맺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막는 일본의 역할도 사라진다. 일본은 보통국가가 될 기회다. 아베는 바로 북한과 수교를 맺을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일본을 이길 수 없다. 일본은 은밀히 핵 무장 직전까지 갈 것이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한·일이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두고 있어서다. 일본의 해공군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보다 강하다. 우리가 북한 하나 상대하기도 힘든데, 일본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한국은 주변국 영토분쟁에서 사면초가에 들어선다. 지금 미국이 센카쿠를 지켜주기 때문에 중국이 시비를 걸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범중·구서윤 기자 joker@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합동참모본부 합참차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 ▲3사단 사단장





# 이통3사 '암울한 1분기'... 통신비 인하·5G 투자 등 영향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7% 이상 감소  
투자 늘지만 시장 포화... 수익 미미  
새 회계기준 적용으로 혼란 예상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은 통신비 인하 움직임,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어두운 전망이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일 KT를 시작으로 4일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개편 등 이익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실적발표는 새 회계기준이 적용돼 다소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KT·KT는 '흐림', LGU+은 '선방'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이동통신 3사의 1·4분기 전체 매출이 약 13조 원, 영업이익이 약 9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 넘게 감소하게 된다.

각 사별로는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는 흐린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각 4조3000억원대, 4000억원으로 예상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0.8% 증가, 영업이익은 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KT도 매출은 같은 기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은 5%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5G 투자·통신비 인하 압박에... 향후 전

망도 '우울'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어두운 원인은 25% 선택약정할인, 요금체계 개편 등의 이유가 꼽혔다.

지난해 9월 선택약정 할인이 20%에서 25%로 상향되고, 이를 선택하는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면 올 연말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약 24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6월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 후 최소 경매가가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 5G 주파수에 대한 설비투자 부담도 산적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 구축에 약 15조원 가량 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5G 투자에는 약 2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향후 들어갈 자금은 많지만,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으로 롱테일부러선(LTE) 가입자 유치를 통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1분기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 줄어든 140만명을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새 회계 기준 'IFRS 15'이 새 변수

올 1·4분기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5' 적용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IFRS 15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새로 마련한 수익인식 기준으로, 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상장사에 전면 도입됐다.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마케팅비의 일부가 분산 반영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체결되면 일시에 수익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는 계약 기간에 따라 분산 반영하거나 제품 인도 시점에 반영해야 한다. 통신사의 경우 보조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약정 기간에 걸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거의 마케팅 비용도 당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판매장려금이나 공시지원금 등의 마케팅 비용을 한번에 반영하지 않고, 24개월로 나눠서 반영하는 식이다. 이 경우 선택약정 가입자가 급증하면 단말 매출이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 요금할인액은 서비스 매출에서 약정 기간 분산 차감되지만, 단말 매출액에서는 판매 시점에 일시에 차감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IFRS 15 적용 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부정적 효과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년 가입자유치비용 증가와 단말기 매출액 감소분을 감안하면, IFRS 15 전환에 따라 통신사 영업이익의 감소분은 SK텔레콤은 1629억원, KT는 1038억원, LG유플러스 742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투자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IFRS 15 도입으로 통신사 회계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져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 전망"이라며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가 급증할 경우 당기 단말기매출액이 급감해 특정 분기에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일 행인들이 용산역에 설치된 'LG G7 ThinQ 스퀘어'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 'LG G7 씽큐' 공개 D-2... 용산역에 체험존

광고모델 방탄소년단 인사 영상 담아

LG전자가 차기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7 씽큐(ThinQ)' 공개를 이틀 앞두고 막바지 점검을 서두르고 있다.

LG전자는 3일 서울 KTX 용산역에 제품 체험존 'LG G7 씽큐 스퀘어'를 설치하고 언론 대상 공개 행사를 열 예정이다. 행사가 끝난 4일부터는 일반 고객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LG G7 씽큐 스퀘어는 신제품에 탑재된 새로운 기능들을 고객들이 꼼꼼히 체험해 보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LG G7 씽큐 100여 대를 배치하고 디스플레이, 카메라, 오디오 기능별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또 LG G7 씽큐와 LG 스마트 가전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LG G7 씽큐 스퀘어는 224㎡ 규모로, 공개 시점까지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높이 2.5m의 검은색 벽을 설치했다.

입구에는 가로 3.4m, 세로 2m 크기의 대형 사이니지를 설치해 신제품 티징 광고 영상과 LG G7 씽큐 글로벌 광고 모델인 방탄소년단의 인사 영상을 상영한다.

LG전자는 4일부터 용산역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에서 'LG G7 씽큐 스퀘어'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쉽게 신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 LGU+, 300여개 골프장 실시간 예약서비스

그린웍스와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LG유플러스는 골프부킹서비스 '엑스골프'를 제공하는 그린웍스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LG유플러스는 자사 'U+골프' 애플리케이션(앱)에 엑스골프와 제휴돼 있는 전국 300여개 골프장의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연동해 제공한다. 또 이를 기념해 U+골프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엑스골프 유료회원권을 지급한다.

유료회원권은 엑스골프 홈페이지 내에서 주중 및 주말 골프장 예약과 엑스골프에서 주최하는 골프 박람회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멤버십이다.

77만명의 국내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엑스골프는 자사 가입자중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U+골프 서비스 홍보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인플루언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

## “아리아~ 문자 보내줘” T맵 음성문자 도입

SK텔레콤 'T맵×누구' 기능 추가  
음성인식 반응속도 30% 이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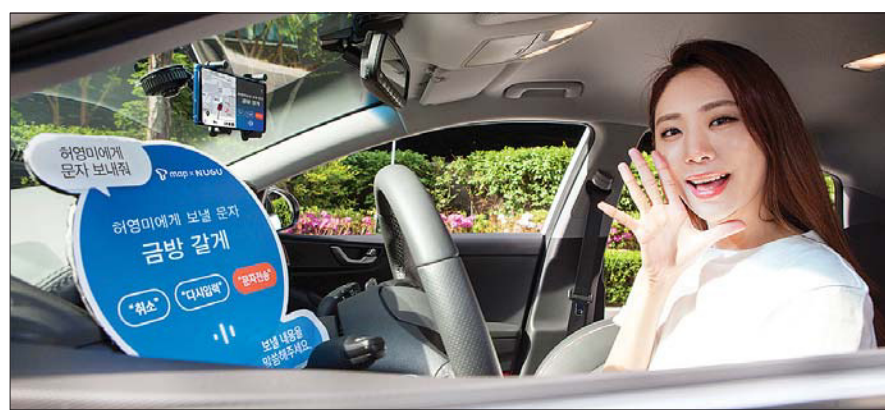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킨 'T맵×누구'에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나 별도의 조작 없이 “아리아, (받는 사람에게 (내용)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리아, 문자 보내줘”, “아리아, (받는 사람에게 문자 보내줘”, “아리아, (내용) 문자 보내줘”라고 말해도 받는 사람이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문자 수신은 받은 문자 내용을 음성으로 듣는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해당 기능은 문자 수신 시 “아리아, 문자 읽어줘”라고 말하면, 'T맵×누구'로부터 받은 문자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

또 수신문자를 듣는 도중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문자를



모델이 T맵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들을 경우 '이전' 혹은 '다음' 등의 명령어로 특정 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광고 문자는 '광고문자예요'라고만 읽는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음성인식 반응속도를 기존 대비 30% 이상 개선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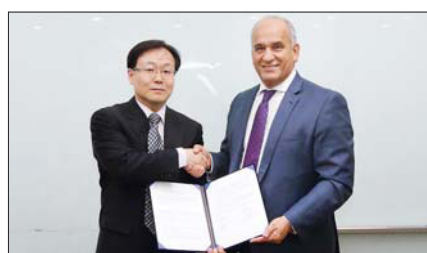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 추가를 위한 T맵 업데이트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4주간 T맵 이용자의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T맵 내

'운전습관'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음성 기능을 3일 이상 사용한 운전자의 평균 점수가 64점을 기록, 음성 기능 미사용자와 비교해 평균 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습관 점수는 T맵 이용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급가속이나 급정거 여부 등을 반영해 추산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은 운전자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아 보험사의 안전주행에 따른 보험료 할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김나인 기자

## KT, 아칸티아와 5배 빠른 기가인터넷 개발



KT 융합기술원 김현표 상무(왼쪽)와 아칸티아의 파라지알라이(Faraj Aalaei) CEO가 '10Gbps급 인터넷 칩셋 개발을 위한 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랜선 10기가급 인터넷 칩셋 MOU

KT는 글로벌 칩셋 개발사인 아칸티아와 LAN선 기반의 10기가(Gbps)급 인터넷 칩셋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술로는 LAN선 2쌍으로 최대 속도 1기가비피에스(Gbps)까지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LAN선 2쌍으로 최대 2.5Gbps까지 속

도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제표준(IEEE 802.3bz)을 준용해 LAN선 4쌍으로 최대 5Gbps까지 제공할 수 있다. 설치 환경에 따라 시스템이 선로의 품질을 판단해 1~5기가까지 최적 속도를 자동 제공한다.

특히 2000년 이전에 건축된 빌딩의 경우 구내배선 대부분이 한 세대당 LAN선 2쌍으로 설치돼 있어 1Gbps 이상의 속도 구현이 어려웠다. 회사 측은 이 기술 개발로 대부분 지역에서 회선 공사 없이 기존 랜선으로 최대 2.5Gbp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 지역경제, LCC의 '상생경영'으로 함께 '훨훨'

(저비용항공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주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김해공항에 이어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지방공항의 획기적인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거점을 확대했다.

국제선 신규취항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을 제주항공의 새로운 허브공항으로 삼아 신규노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제공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했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신규수요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오사카와 다낭, 방콕 등 3개 노선에 주 14회 정기편 운항을 통해 올해 말까지 500여 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무안공항의 2개 정기 국제선(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 출발 기준 193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주항공** 무안공항 활성화 나서

**티웨이항공** 지역 중심 노선 확대

**에어부산** 지역 인재 조종사 양성

2.6배 늘어난 수치다.

노선 다변화와 공급석 확대를 통해 호남 지역 여행자의 해외여행 편의가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의 공격적인 신규취항을 통해 지방공항이 활성화 된 효과는 이미 부산 김해국제공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2011년 6월 부산발 대국 방콕노선에 첫 취항한 제주항공은 이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일본 4개 도시와 타이베이, 광, 사이판 등 국제선 정기노선을 11개까지 늘리며 김해공항의 국제선 공



급력을 크게 높였다. 이 같은 노선 다변화의 결과로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011년 61만4860명에서 지난해에는 105만 2591명으로 약 66% 증가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노선 확대를 펼치고 있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대구·제주·부산을 출발하는 국제선까지 총 10개의 노선을 새로 취항했다. 티웨이항공을 이용한 여행객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보다 30% 늘어난 637만명의 인원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실적적으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매출 5840억원·영업이익 471억원을 각각 올렸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53%·270%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부산을 거점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은 영남권 지역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오는 7월부터 영남권 지역의 인재 대상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은 에어부산이 처음이다.

이번 지역 인재 조종사 양성 제도는 에어부산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원을 선(先) 선발한 후, 두 곳 훈련원의 체계적인 훈련 이수율을 통해 직접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총 교육·훈련 기간은 약 2년이며, 이수

조건 및 심사 기준을 충족한 훈련생은 에어부산 수습 조종사로 정식 채용된다.

에어부산의 이번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영남권 지역에서 조종사를 꿈꾸는 예비 조종사들의 취업문이 더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비용항공사들이 수도권 슬롯 포화 등으로 지방 공항을 통해 국제노선 취항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방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전자 중남미 최대 영화관에 '오닉스' 공급

(시네마 LED)

시네맥스와 스크린 공급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중남미 1, 2위 영화관 사업자와 시네마 LED '오닉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시네맥스 본사에서 멕시코 내 시네맥스 5개 관에 오닉스 스크린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중남미 2위 영화관 사업자인 시네맥스는 올 10월 멕시코 시티 안파라 빨랑요 쇼

필름에 위치한 상영관을 시작으로 5개의 오닉스 상영관을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5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중남미 1위 영화관 사업자 시네폴리스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남미 영화시장은 매년 전체 스크린 수가 평균 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관 시설의 첨단화가 유독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네맥스와의 계약을 통해 중남미 영화관 체인 1, 2위 사업자와



지난달 27일 시네맥스 본사가 위치한 멕시코 시티의 시네맥스 극장에서 삼성전자 현지 직원들이 삼성 '오닉스' 브랜드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두 오닉스 스크린 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남미 다른 영화관에도 오닉스

관의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 정우영 신임 한국수입차협회장 "수입차 30만 시대 열 것"

제12대 한국수입차협회장(KAIDA)에 오른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사진)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내 수입차 규모 30만대 시대를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신라스테이 광화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수입차 시장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회장은 "향후 수년 내 수입차 시장이 연간 30만대 판매, 점유율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수입차 시장의 3월까지 실적을 보면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수입차 업체를 이끄는 메시지로 '공정 경쟁'을 내세웠다. 정 회장은 "수입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축구스타 카카와 '나노셀 TV' 알린다

시아각 강조 동영상 유튜브 게재

LG전자가 세계적인 축구스타 카카와 함께 'LG 슈퍼 울트라HD TV' 시야각을 강조하는 동영상을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LG 슈퍼 울트라HD TV는 LG전자의 프리미엄 LCD TV로, 화면에 적용된 미세 나노 물질이 색표현을 또렷하게 해줘 일명 LG 나노셀 TV로도 불린다.

LG전자는 이 영상에서 카카의 슈팅 게

임을 통해 LG 나노셀 TV와 일반 LCD TV의 시야각 성능 차이를 부각했다.

LG전자는 측면에서 봐도 색 표현이 정확한 LG 나노셀 TV 9대를 3대씩 3열로 쌓아올려 대형 화면을 만들었다. 시야각이 좁아 측면에서 보면 일부 색이 왜곡돼 잘 보이지 않는 일반 LCD TV로도 동일한 비디오를 만들었다.

카카는 비디오를 60도 측면에서 공을 차, 각 화면에 뜬 알파벳을 순서대로 맞춰 주어진 단어를 완성하는 게임을 진행했



다. 카카는 LG 나노셀 TV로 만든 비디오 윌에서 게임을 했을 때 원하는 알파벳을 정확히 맞추며 빠르게 임무를 마쳤다.

하지만 일반 LCD TV로 만든 비디오에서는 실수를 연발해 저조한 기록을 냈다. 정면에서 보면 'G'인 글자가 측면에서

보면 색이 흐릿해져 'C'로 보였기 때문.

LG전자가 시야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객들이 정면뿐 아니라 측면에서 TV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를 보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TV를 시청하기도 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 색재현률, 명암비 등 성능이 떨어진다면, 수년 전 화질 수준의 TV를 시청하는 셈이다.

/정은미 기자

## 상품성·경제성 UP '2018 엑센트' 출시

현대자동차가 상품성과 경제성을 강화한 '2018 엑센트' (사진)를 2일 출시했다.

4도어 모델인 '엑센트'와 5도어 모델인 '엑센트 윌트'로 구성된 2018 엑센트는 내외장 디자인이 바뀌고 4도어 모델에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한 '스마트 스페셜' 트림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 스페셜 트림은 ▲인조가죽 시트, 도어 센터트림, 센터 콘솔 등 고급화 내장 ▲블루투스 핸드프리,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등 멀티미디어 사양 ▲미



세먼지 포집 성능을 강화한 마이크로 에어필터 등을 기본 적용했다.

2018 엑센트의 판매가격은 4도어 모델 ▲1.4 가솔린 1159만~1751만원 ▲1.6 디

젤 1469만~2079만원, 5도어 모델 ▲1.4 가솔린 1422만~1766만원 ▲1.6 디젤 1760만~209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 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강사: 김민석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DGB금융 차기 회장, 학맥·인맥·순혈 고집하면 공멸”

## DGB금융지주 DGB

이경섭·김태오·박병탁 '3파전'  
경영능력 검증된 CEO가 필요  
31일 임시주총서 최종 확정 예정



DGB금융그룹 제2본점 /DGB대구은행

능력으로 뽑아야 할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임 작업이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이분법'으로 흐르고 있다. 내부냐 외부냐, 경북고대 비경복고 등 편 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DGB금융지주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DGB금융지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삼국지의 유비가 보여준 '서번트(섬기는) 리더십'이란 지적이다. 조조의 추격군에 덩미를 잡힐 뻔하자 참모들은 백성을 때어 놓자고 했다. 하지만 유비는 "나를 따르는 백성을 어찌 버린단 말인가. 내가 비록 조조에게 잡혀 불리한 신세가 된다 해도 백성과 같이 가겠다"는 말로 불평을 잠재웠다.

유비 처럼 고객에게 머리를 숙일 때와 시장과의 신뢰를 지킬 때 그리고 강인한 리더십을 표출할 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경섭 Vs 김태오 Vs 박병탁

1일 DGB금융지주와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 차기 회장은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 박병탁 전 씨티은행 부회장 등 3파전

이 예상된다.

DGB금융과 지역 시민단체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최고경영자(CEO)가 수렁에 빠진 DGB금융지주를 건져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3명의 경영 능력을 어떻게. 이경섭 전 농협은행장은 2016년 3대 은행장에 취임해 2년 동안 살림을 맡았다. "행장이 아닌 모든 행원들이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강한 은행을 만들 겁니다."

그가 2016년 농협은행장에 취임할 때 한 말이다. 그는 "농협은행은 일류로 비상하느냐, 삼류로 추락하느냐는 갈림길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3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경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협은행의 문제점으로 조직의 '적당주의'와 '온정주의'를 지목했다. 실제 2015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난 1763억원이었다.

이 행장이 취임한 2016년에도 신통이 없었다. 겨우 1111억원. 숫자만 보면 "농협이 그렇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조성과 해운에 몰린 여·수신과 선박 선수보증 부실화에 따른 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빼면 대박을 터트린 셈이다. 이들 충당금도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벌여놓은 뒷 수습 차원이었다. 시장에서 연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던 터라 '흑자' 자체가 기적이라고까지 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자이익은 4조3821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2년 지주사 설립 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순이익은 6521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8715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무려 486.9%나 늘었다.

이 전 행장은 198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뒤 인사팀과 수신부, 농협금융 경영지원부·서울지역본부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농협금융 부사장 때는 금융권 최초로 은행·보험·증권점포를 한곳에 모은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하기도 했다. 알짜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를 진두지휘했다. 이경섭 전 행장은 농협금융 안팎에서 추진력을 갖춘 전략가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지방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DGB금융지주를 이끌 검증된 CEO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은 큰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다. 그의 주 재임 시절인 2012년과 2013년 회계연도 하나생명의 자산총계는

각각 2조 8734억원, 2조9904억원으로 삼성생명(2013년 자산총계 193조원)의 본부 수준도 안된다. 하나은행 대구지역본부장을 잠시 거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한 터라 지역 경제에도 밝지 않다는 평가다.

박병탁 전 씨티은행 전 부회장은 유일하게 외국계 은행 출신이다. CEO경험은 없다.

경영성과도 자랑할 만하게 없다. 한국씨티은행의 최근 3년 간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말 50조 5576억원, 2016년 말 45조8162억원, 2017년 42조9302억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순이익도 2015년 3896억원에서 2016년 2935억원으로 줄었다.

그는 무엇보다 국부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거둔 순이익 2437억원의 38.5%에 이르는 939억원 정도가 미국 종합금융회사 씨티그룹에 배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도 앞으로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씨티은행의 눈치만 살피며 보신주의로 일해온 한국씨티은행 조직의 무능과 무책임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점포의 80%(101개)를 폐쇄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도 여전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부자 동네에만 점포를 남겨서 고객을 차별하고 주거래은행으로서 씨티은행과 거래하며 쌓아온 신용자산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은행법 위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동관 DGB유펜이 사장, 진병용 DGB생명 상임감사위원은 박인규 전 회장 사람이란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파벌이 만든 DGB, '백투더 베이직' 필요  
"한국 금융산업의 시계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금융인의 윤리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게 개탄스럽다. 낙하산 경영진이 권력 투쟁이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책임의식을 가질 리가 있겠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A은행장을 지낸 금융계 원로가 DGB 금융 사태를 지켜보며 내놓은 탄식이다. 이는 또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지적하는 발언이다.

금융권에서 DGB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의 기본윤리'가 붕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이런 도덕적 해이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B은행 출신 한 은행장은 "낙하산 관치 금융도 문제지만, 학연·지연에 얽매어 금융의 사유화를 노리는 잘못된 파벌주의가 더 큰 문제다"면서 "이번 기회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DGB금융지주가 살아남는 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DGB금융지주는 오는 3일 6명의 압주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5월 연휴, 해외여행보험 가입하세요”

국내 2~3일 전·해외 1주 전 가입해야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 연휴,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4일 연휴가 나뉘어 있어 가볍게 단기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이다.

여행을 가기 앞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의 교통사고나 조난 대비외에도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이나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자보험가입은 출발 2~3일 전이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의 경우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해외여행일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개인 해외여행일 경우 개별적으로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방법은 설계사, 전화, 인터넷, 인 천공한 카운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30세 남자기준(보험기간 7일)으로 비교한 결과 보험료는 3970원~8100원으로 확인됐다. M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이 397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4120원, 4178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보장 담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 질병의료비 각 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등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 보상은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사고접수-계약사항확인-지급금액결정-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진다.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 보고서를 보험사 해외지사, 한국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귀국 후 청구하면 된다.

또 여행중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 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가 없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 5대 은행장, 필리핀 'ADB 연차총회' 집결

### 동남아 시장 점검·물밑작업 전망 현지 분위기 파악·네트워크 확보

KB국민과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장이 일제히 필리핀 출장길에 오른다.

공식적으로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 5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금융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남아 시장 점검과 진출을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이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 사이 필리핀으로 출발한다.

매년 5월 열리는 ADB 연차총회에는 80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제기구 총재와 주요 은행장 등이 모두 참석한다. 시중 은행장들은 ADB 참석과 함께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맞춰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지 분위기 파악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 모두 향후 성장동력으로 해외진출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성도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해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가 넘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동남아가 은행들의 진출 격전지로 떠올랐다. 현재 필리핀에 현지 거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등은 마닐라 지점을 방문해 최근 영업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이스트웨스트은행 지분 20% 매각 분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 이후로 별 다른 진전이 없음을 감안하면 위 행장이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번에 베트남 사무소와 미얀마 현지법인까지 둘러보고 을 계획이다. 올해 베트남에 2~3개의 지

점을 더 만들어 법인화하는 등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행장은 "농협만의 농업금융 노하우를 살려 동남아시아 농업국을 중심으로 진출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전략이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앞서 지난달 초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오면서 이번에는 ADB 참석 외에 아직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허 행장은 미얀마 방문 당시 행정수도인 네피도를 방문해 건설부장관, 중앙은행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의 미얀마현지법인인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영업현장도 방문해 금융수요에 대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같은 기간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이유로 이번 ADB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총 상금 7억원에 도전하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기관 | 접수기간 | 2018.5.1 - 2018.6.30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openidea.skhynix.com)





# “입장만 3시간 걸려”... 동남부권 新주거벨트로 관심↑

## Q 르포 |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가보니

현대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하남포웰시티’가 분양을 시작했다.

하남포웰시티아파트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감일동에 위치한 감일지구 3개블록(B6·C2·C3)에 들어선다. 하남 감일지구는 강남~송파, 미사~감일~위례를 잇는 수도권 동남부권 새로운 주거벨트 중심지로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답게 지난 27일 오픈한 견본주택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입구에서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내방객들로 장사진이 펼쳐졌다. 견본주택 내부는 분양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온 A씨(49)는 “오전 7시에 도착해 입장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다”며 “이러다가는 저녁 무렵에야 집에 갈 것 같다”고 했다.

‘하남포웰시티’의 단지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0층 24개동으로 총 2603가구다. 블록별로 B6블록 6개동 932가구, C2블록 9개동 881가구, C3블록 9개동 790가구로 구성되는 대규모 단지다.

공급되는 면적은 전용기준 73㎡~152

현대·대우·포스코·태영건설 분양 면적 73~152㎡... 평형별 장점

오늘부터 특별공급 접수 시작  
㎡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B6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C2·C3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다. 블록별 세대수는 B6블록이 ▲73㎡ 470가구 ▲84㎡ 462가구, C2블록은 ▲90㎡ 450가구 ▲99㎡A 332가구 ▲99㎡B 84가구 ▲125㎡ 7가구 ▲152㎡ 8가구, C3블록은 ▲90㎡A 86가구 ▲90㎡B 173가구 ▲90㎡T 4가구 ▲99㎡A 414가구 ▲99㎡B 111가구 ▲152㎡ 2가구로 공급한다.

‘하남 포웰시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680만원에 책정됐다. 73㎡~152㎡까지 4억~12억원선이다. 블록별로는 B6블록이 ▲73㎡ 4억5000만~5억원 ▲84㎡는 5억~5억7000만원 C2블록은 ▲90㎡가 5억3000만~6억원 ▲99㎡A 6억1200만~6억9000만원 ▲99㎡B 6억1800만~6억8500만원 ▲125㎡는 8억1000만원 ▲152㎡는 12억2500만원~12억4400만원이다. C3블록은 ▲90㎡A 5억2700만~5억8400만원 ▲90㎡B 5억2700만~6억원 ▲99㎡A 6억~6억8900만



지난 27일 개관한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 앞의 모습(위)과 ‘하남포웰시티’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

원 ▲99㎡B 6억~6억8100만원 ▲152㎡ 12억4400만원 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다. 감일지구 바로 앞에서

하남IC가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이내 하나마트, 송파소방서, 골프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고

롯데월드타워,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상업시설도 차로 2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청덕역 등 교육시설이 다수 포진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보권 내 초·중·고 교육시설이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내방객 B씨(54)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분양 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현재 전용 73㎡형에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 마련된 평형대는 84㎡, 90㎡, 99㎡A, 99㎡B 등이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하남포웰시티’는 평형별로 장점이 있다. 99㎡B는 현관에서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고, 99㎡A는 주방이 넓게 설계됐다.

그러나 발코니확장 부분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방객도 있었다. 침실을 둘러본 70대 방문자 C씨는 “발코니 확장은 필수나 다름없는 것 같다”며 “확장공사를 하지 않으면 좁아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하남 포웰시티 분양일정은 5월 2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순위 청약 접수는 3일, 2순위는 4일에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다. 입주는 B6블록이 오는 2020년 11월, C2블록 2021년 2월, C3블록 2021년 3월 예정이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사모펀드로 쏠림현상 우려

### 일부 자산가만 혜택볼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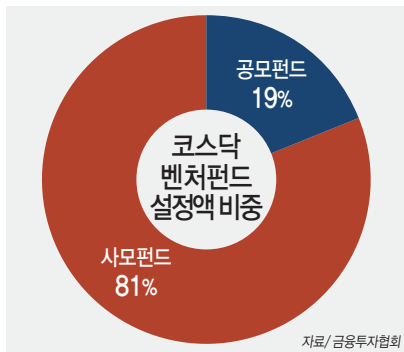
2조원의 자금을 끌어 모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산가 위주의 사모펀드가 활발해지면 코스닥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편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까지 코스닥벤처펀드로 모인 자금은 1조 9469억원으로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인 1조 4232억원이 사모펀드에 쏠렸다.

펀드 수 역시 사모펀드가 압도적이다. 현재 설정된 106개의 펀드 중 93%(99개)가 사모펀드다. 공모형 펀드는 KT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7개가 유일한데 이 중 KTB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펀드 모두 소프트클로징(신규 추가 가입 중단)을 한 상태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반면 사모펀드는 최소 가입 규모가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산가 위주의 투자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경우 최소 가입 규모가 10억원이다. 디에스자산운용 역시 5억원이 최소 가입금액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인기몰이 비결은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실제 지난 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의 공모가 대비 상장 직후 30일 평균 수익률은 22%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카카오킴즈, 톨젠 등 굵직한 벤처 기업들이 코스닥 상



장을 준비하고 있어 흥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를 통해 공모주를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자산가들 사이에 사모형 코스닥벤처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사모펀드에 비해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자산 편입 규제 때문이었다. 공모펀드가 메자닌(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편입하려면 메자닌 발행기업이 2개 이상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등급을 받은 벤처기업의 채권은 많지 않다.

때문에 펀드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물량을 담아야 하는 코스닥벤처 펀드는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1000억원 규모의 펀드라면 150억원어치 이상의 채권을 사들여야 하는데 등급이 있는 채권이 시장엔 많지 않아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없이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균형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손영지 기자 sonyj3101@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최대 10% 추가 배정

앞으로 코스닥 벤처펀드는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주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이 허용된다. 사모펀드도 1년 6개월(잠정)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엔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코스닥벤처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해 주고, 최대 3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 펀드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달 5일 출시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조원 가까이(26일 기준 1조 9469억원) 판매됐다. 과거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출시 후 4주차 판매 금액과 비교하면 최대 86배 더 많이 팔린 셈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초반 돌풍은 공모주 배정에 따른 수익률 기대, 가입에 제한 없는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 시장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모(5236억원)에 비해 사모(1조4000억원)펀드 위주로 판매돼 국민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과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주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인수업무 규정은 공모주 배정 비중을 그룹별(우리사주 20%, 일반투자자 20%, 하이일드 10%, 코스닥 펀드 30%, 기관 20%)로 구분하고 있으나,

### 〈코스닥 벤처펀드의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예시)〉

구분	순자산	청약규모	배정금액			펀드 수익률	신주편입 총증비율
			순자산 기준	10% 공모추가	조정 수량*		
사모펀드 1	100(A1)	100	5	5	4.8	1.7%	4.8%
사모펀드 2	100(A2)	100	5	5	4.8	1.7%	4.8%
사모펀드 3	300(A3)	100	15	15	14.3	1.7%	4.8%
사모펀드 4	500(A4)	100	25	25	23.8	1.7%	4.8%
공모펀드 5	1,000(A5)	100	50	55	52.4	1.9%	5.2%
합계	2,000(B)	500	100	105	-	-	-

\*① 조정수량: ② 10% 공모추가 물량에서 ×100/105로 산출.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 ‘균형성장 방안’ 발표

#### 공모주 물량 30% 우선 배정

#### 배정기준 마련·운용규제 개선

배정방식은 주관사 재량으로 뒀다.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 배정 방식은 소규모 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사모 구분 없이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해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용규제를 보완하고, 동일한 조건에선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을 배정한다.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무등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 신용등급 평가 없이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QIB는 적격투자기관만이 참여 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 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도 유도한다. 사모펀드는 1년 6개월 환매금지 기간을 둘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1년 내 펀드를 청산할 경우 불실질 기관투자자 지정과 함께 장기 투자에 한해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 부작용을 막는다.

이 밖에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공모주 신청에 있어 동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 자산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 등 인수업무 규정개정 이외 사항은 신속히 마무리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코스닥 벤처펀드로 쏠리는 자금(사모)에 대한 우려는 공모, 사모펀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되는 자연스러운 이슈”라면서도 “코스닥 벤처펀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모와 사모 간 균형 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단계 초기투자에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원활히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北美회담 장소 ‘판문점’ 급부상… 文, 평화 운전대 잡다

**美 트럼프**  
판문점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에 “전적으로 가능… 기념행사될 것”

**文 대통령**  
남북미·남북미중 회담 통한 ‘중전선인’ 화통점정 구상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판문점에서의 ‘한반도 빅뱅’ 가능성이 급속도로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땅’으로의 면모가 부각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합의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을 도출한다면 극적인 효과가 배가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동력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여부가 좌우될 ‘큰 판’의 ‘빅 플레이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소의 상징성이 이를 추동할 수 있기에 판문점이 더욱 부각되는 흐름이다.

애초 판문점은 북미정상회담 장소 후보지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를 되살리는 과정에 문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합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공식 거론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라는 게 그런 판단의 주요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회담 장소로 검토되지만, 남북 접경지역인 평화의 집(PEACEHOUSE)·자유집(FREEDOMHOUSE)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거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는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그만큼 판문점을 유력한 회담 장소로 고민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장소를 놓고 어디가 좋겠냐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판문점 개최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권했거나 설

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판문점을 주요 옵션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미정상이 북미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민하는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포스트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미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 면모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북미회담으로 고스란히 이어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통해 중전선인으로 ‘화통점정’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구상’ 발표 이래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

를 끌어내고 급기야 북미 간 고민의 한 지점인 장소 결정에도 어느 정도 관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논의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 사이에서도 이 사안이 이미 논의됐을 거라는 추론을 낳는다. 이 경우 판문점 낙점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마다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비핵화 이전 보상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에 관해서도 현실적 절충안 또는 타협안을 북한과 미국에 각각 전달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평화로 옮겨가는 대전환기의 이정표가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협상가로서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지 주목하는 시선은 그래서 지속되고 있다. /연말뉴스

## “모든 성장, 노동자 위한 성장이어야”

**文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주 52시간 노동, 휴식있는 삶 즐기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자신과 부모,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노동절 메시지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 아버지의 손톱에 깎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

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히 생각해 주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작년 오늘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 그 핵심”이라며 “정부의 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말뉴스



## 대북 확성기 역사속으로… 철거 시작

‘판문점 선언’ 발표 따라 실시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가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예고한 대로 오늘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운영하는 국군심리전단은 확성기 제작업체의 안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군 당국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셈이다.

군 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 40여대의 고정식·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운용해왔지만, 현재는 가동 중단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군 당국은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를 철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선제적으로 철거하는 데 호응해 북한도 순차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고정식 확성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철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해 최근까지 가동해왔다. /최신용 기자 grandtrust@

## 4월 임시국회 ‘빈손’ … 국회정상화 논의 시작도 못해

4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일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독한 설전만 주고받았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4월 국회의 발목을 잡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전한 데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가팔라지며 5월 임시국회에도 암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 수용을 전제로 임시국회에 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임시국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권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심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여권이 비준 동의만 압박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미 협력이 예고됐다.

5월 국회까지 파행으로 끝나면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돼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

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위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 (판문점 선언을 어디까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 그런 구분을 해나가고 있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해나갈 생각”이라며 “저희는 당장 이것(국회 비준 동의)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의 비준 동의 시점과 관련해 선택지를 북미정상회담까지로 확대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판문점 선언의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뉴스



# 시중은행 자금조달 재개?... 9.3조 은행채 '발등에 불'

(5월 만기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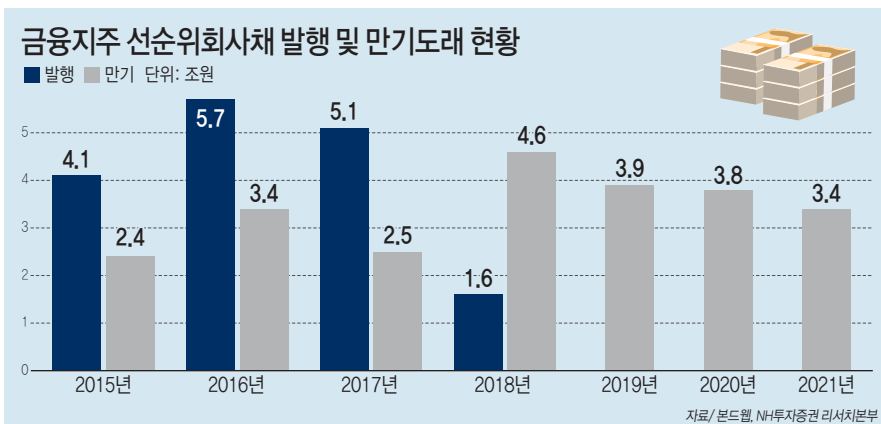
DTI·DSR 영향 외부 수혈에 신중  
특수은행도 산금채 3.3조 예정  
美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부담'

국내 은행들의 발등에 불(자금 조달)이 떨어졌다. 5월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돌아 오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대신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영업에 나선데 따른 자금 수요도 있다.

시중은행들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신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이 줄자, 외부 수혈에 신중했다.

1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5월 은행채 만기는 약 9조3000억원 규모다. 6월까지 확대하면 국민은행이 1조4000억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우리·하나·신한은행도 각각 1조2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특수은행도 5월에 산금채 3조3000억원, 수출입은행채 1조4000억원 등 5조9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예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리 역전'까지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 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풀옵선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 증가로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183bp(1bp=0.01%포인트)에서 올해 170bp로 낮아졌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발행 확대 여건도 마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코코본드란 발행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발행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되는 사채를 뜻한다. 은행지주회사는 지금껏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를 발행해 왔다. 이 때문에 비상장 은행지주회사는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었다. 또 은행지주회사는 건성 규제인 바젤3 자본인정 요건에 맞는 코코본드도 발행하지 못했다.

6개(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DGB금융·BNK금융) 금융지주는 연초 후 지난 13일까지 2조 4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발행액 5조 4000억원의 45%에 달한다. 코코본드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5조1000억원) 발행 규모의 32% 수준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차환과 자회사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 인상 이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먹거리로 떠오른 중소기업 대출 수요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34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6000억원(4.2%)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15년 말 320조4000억원에서 2016년 말 329조1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2.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4% 증가율을 나타냈고,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기업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손실을 치렀던 은행들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이었다. 대출 기준도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 평가 위주였다. 지금은 달라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속속 도입된 데 따른 변화다. /전문기자 kmh@metroseoul.co.kr

## 中 반도체 굴기에 도시바 인수 좌초 위기

SK하이닉스 등 연합군 좌불안석  
中 독점금지법 심사 승인 못받아  
미국기업 관련 M&A 지연 견해도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중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넘겼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시한이 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방해가 되는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앞으로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매각이 철회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 마감 2차 시한이 이날을 기준으로 넘겼다.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 매각안은 수급이 많은 주요 8개국에서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일

본, 유럽연합(EU), 브라질, 필리핀, 대만 등 7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중국당국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중국 상무부의 심사 절차는 1차 시한인 3월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2차 시한까지 결국 지나가 버렸다.

중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추측이 나온다.

가장 우선시 되는 이유로는 한미일 연합에 포함된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사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아래 올해 낸드플래시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램 분야에만 강했던 SK하이닉스가 이번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바탕으로 낸드플래시 사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경우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최근 국제 통상 질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

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에 대한 검토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미일 연합은 베인캐피탈이 주도하는데 미국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이런 이유로 미국 퀄컴의 NXP 인수도 미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 인수, 퀄컴의 네덜란드 NXP반도체 인수 등 미국 기업이 관련된 M&A 거래 승인에 대한 검토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도시바가 도시바 메모리 매각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달 19일 열린 '제3회 사회성과인센티브어워드'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도시바 반도체 인수와 관련해 최 회장은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조했다.

도시바도 매각안이 무산될 위험에 처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중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넘겼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시한이 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철회 가능성을 제기되고 있다. /도시바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어떤 결정도 한 바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거래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SK그룹과 도시바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도시바메모리의 매각 작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도시바는 미국의 베인 캐피탈, 한국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과 2조엔(186억 달러)에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 호황 속에 반도체 사업부의 가치는 최소 220억~240억 달러로 올랐다.

해외 투자자 일각에서는 매각 철회나

매각액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도시바는 지난해 12월 6000억엔 증자에 성공해 재무 상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중국의 반독점 심사 지연은 매각 철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도시바와의 협상 주체가 베인캐피탈이라는 점 때문에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철회 가능성도 염두하고 낸드플래시 사업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기 기자 21cindun@

## 수출 18개월만에 하락... 누적수출액은 '최고'

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개월 만에 하락했다.

하지만 1월~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00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5%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수출의 경우 54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 인도가 이뤄지고 5월 초 장기 연휴에 대비한 수출물량이 풀리면서 전년 대비 23.8%나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 4월 수출 증가율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4월 수입액은 434억5000만 달러로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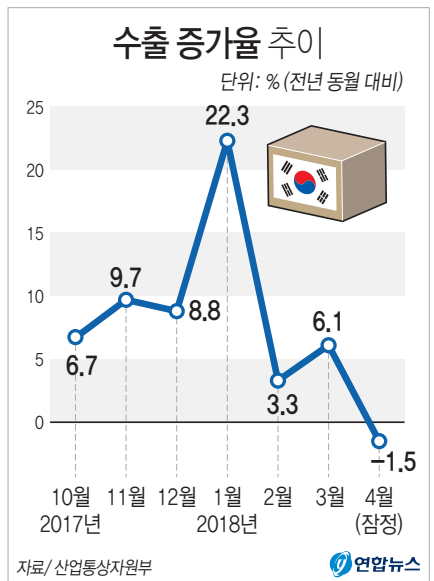
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늘었고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로 7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4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 보다 6.9% 증가한 1955억 달러로 1~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 3월 515억 8000만 달러에 이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 달러도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53.6%), 반도체(37.0%), 컴퓨터(23.5%), 일반기계(13.1%), 석유화학(11.7%), 자동차부품(6.6%), 섬유(6.0%)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97억8000만 달러로 역대 2위의 실적을 달성해 전체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반면, 철강(-7.4%), 자동차(-8.6%), 디스플레이(-16.2%), 가전(-20.1%), 무선통신기기(-40.7%), 선박(-75.0%) 등



6개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자동차는 최대 시장인 미국 판매 부진,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 감소 원인이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

금감원, 감리 완료·관련사실 통보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차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조차사전통지서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인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상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

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벌였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안성미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현대차 '통큰 주주친화 정책'... 1조 규모 자사주 소각

총 854만 주의 이익소각 추진  
14년 만에 대규모 자사주 소각  
"약 3%의 EPS 증가 효과 기대"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자사주 매각을 통해 주주친화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주주가치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주 661만 주, 우선주 193만 주 등 모두 854만 주의 이익소각을 추진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현대차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선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현대차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은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했다. 같은 해 현대차는 5000여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투명한 경영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2016년 기업 지배구조 현장 제정, 2017년 중장기 신 배당정책 발표(잉여현금흐름의 30~50% 배당)에 이르기까지 매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 역시 주주 권익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들로부터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받



현대차그룹 사옥.

아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투명경영위원회를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기존 4개사에서 현대제철, 현대건설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는 등 주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이와관련해 증권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이번 주식 소각을 통해 약 3%의 주당 순이익(EPS)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

며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방법론과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았다는 점에서 주식 소각 경정의 배경과 내용, 향후 전망 등 현대차그룹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자기 주식 소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향후 배당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현대차의 1조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엘리엇은 "현대차의 주주로서 경영진이 발표한 자사주 일부 소각과 추가 주식 매입 후 소각 계획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발전이기는 하지만 주주들이 경영진에 기대하는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후 지속해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건실한 실적을 내는 데 집중해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주주환원 확대 방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북방물류' 가속화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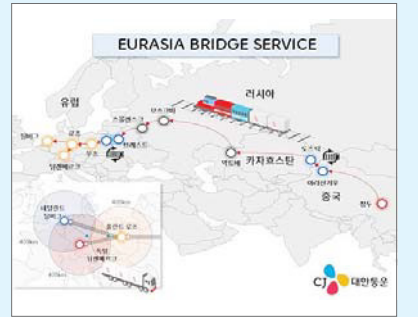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 출시

CJ대한통운은 유럽과 아시아 간 중국횡단철도(TCR)와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EABS)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국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넣고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지역 기차역까지 수송한 뒤 다시 트럭으로 고객사 물류센터나 공장까지 바로 운송해주는 서비스다. 유럽에서 중국으로 가는 화물은 역순으로 운영된다.

CJ대한통운은 철도와 트럭을 이용해 아시아와 유럽 간 '문앞에서 문앞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한 유럽-아시아 간 화물운송은 비용이 항공운송의



5분의 1, 소요시간은 해상운송의 3분의 1에 불과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은 "앞으로 아시아발 유럽항 운송라인을 52개로, 유럽발 아시아항 운송라인을 74개까지 늘려 베를린, 암스테르담, 로마 등 유럽 30개 주요 도시와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24개 주요 도시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

## 남북 관계 훈풍에 파주 땅값 '들썩'

철책선 인근 땅 평당 30만원 상승  
파주지역 부동산 매수문의 '붐물'  
"정치 변수 있어 장기적 관망해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경기도 파주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정부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주일대가 파주~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파주시 운정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물들 거둬들이는 토지가 많아 물건이 실종됐다"며 "철책선에서 가까운 쪽은 지난 주만 해도 3.3㎡당 15만~20만원이거나 10만원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50만원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현재 매수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경기도 파주에 '제2 개성공단'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파주 땅값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는 7월 입주할 앞둔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99㎡의 경우 분양가가 3억5500만원이었는데 현재 6000만~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05㎡가 3억2000만원인데 현재 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호재 뿐만 아니라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GTX가 개발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 인근 아파트 단지.

파주 운정과 일산, 강남 삼성, 동탄을 잇는 GTX가 개통되면 서울 도심 접근성이 높아진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파주시 야당역 인근 '한빛마을 5단지 캐슬엔칸타빌'의 매매가는 79㎡가 3억2000만~3억3000만원, 99㎡는 3억8000만~4억원선이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전용 84㎡ 매물이 3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3월 들어 3억9000만원으로 뛰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달 입주하는 '한빛마을 4단지' 아파트는 99㎡ 분양가가 3억7000만원이다"며 "현재 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야당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야당동의 ㎡당 시세는 지난해 3월 302만원에서 올해 3월 317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달에는 324만원을 기록했다.

파주시 운정역 외곽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68)는 "내가 보유한 공장

의 땅값은 현재 3.3㎡당 200만원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파주시 금촌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5㎡의 경우 2억2000만원, 72㎡가 1억8000만원, 62㎡는 1억6000만원이다"며 "파주 지역은 매물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 호재로 아파트와 토지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며 "토지는 범위가 넓어 일률적인 시세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금촌역에서 약 7분 거리의 땅값이 3.3㎡당 70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산읍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경우 투자에 있어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중개업자에 따르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관망해야 한다. 정치적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1964@

## "냉면 동났어요" 편의점·마트 판매 ↑

GS25·GS슈퍼마켓 사흘간  
냉면류 판매 최대 2배 늘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옥류관 평양냉면'이 이슈가 되면서 편의점과 마트에서 냉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도 '남북정상회담'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일을 포함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농심 동지 물냉면'과 '동지 비빔냉면' 매출이 전주 대비 14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GS슈퍼마켓에서도 '동원면발의 신 평양물냉면' 매출이 전주와 비교해 157.1% 늘었다.

GS리테일 측은 GS25와 GS슈퍼마켓에서 전주보다 냉면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풀무원도 정상회담 이후 '생가득 평양물냉면' 매출이 2배 넘게 늘었다.

정상회담 당일을 포함해 사흘간(4월 27~29일) 일평균 매출이 직전 평일(4월 23~26일) 일평균 매출보다 212% 증가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당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에 평양냉면이올라 화제가 되면서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냉면을 구매한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올라온 북한 옥류관 평양냉면. /연합뉴스

우래옥, 을밀대, 필동면옥 등 서울의 유명 평양냉면집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도 평양냉면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미국 방송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 메뉴로 직접 제면기까지 공수해 평양냉면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해 냉면틀에 눌러서 국수로 뽑아 찬 육수를 부어 먹는 음식으로 대체적으로 시원한 여름에 즐겨먹는다. 북한에서는 추운 겨울에 동치미 국물에 메밀면을 말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SPC그룹은 회담 당일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에게 무료 제공한 '라이언 미니설거'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떡 프랜차이즈 '빚은'이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 얼굴 모양으로 만든 제품이다. SPC그룹은 다음 달 8일부터 온라인 행사를 통해 300명에게 라이언 설거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급”

(광주~순천)

“82년간 방치 지역차별 사례” 지적  
1000만명 거주·관광·산업 클러스터  
남부권 신경제권 형성 ‘균형발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광주·전남·부산·경남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송정~전남 순천 간 경전선 직선 전철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경전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국토 남부권의 신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의 세로축과 함께 가로축을 고속전철로 연결해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남해안 지역은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의 고속전철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에서 남해안을 경유 삼랑진까지 이어지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교통망으로 110년이 넘도록 동서로 횡단하면서 지역발전과 영호남 교류에 기여해 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광

주·전남·부산·경남지역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개최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거웠다. 최완석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신

민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 김철수 한국교통대 교수, 정현영 부산대 교수, 한현목 세계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남해안 고속화 철도사업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며 “이제 이 퍼즐을 맞춰 넣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82년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고 방치된 경전선 광

주~순천 구간은 대표적인 지역차별 사례다”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경전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KTX가 운행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광주~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제공될 것”이라며 “남부경제권 기반구축과 동서통합으로 국가 재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남해안 경제권에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다양한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남해안 신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전철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고속전철화사업은 유발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논리에 막혀 수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진도군, 지방채 94억원 조기 상환

민선6기 순채무 152억 전액 상환  
진도군이 올해 3월 지방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민선 6기 152억원이었던 순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군비 부담금이 높은 채무를 단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수립해 빚 청산 작업에 속도를 냈다. 군은 로드맵에 따라 군내 농공단지 조성사업 58억원, 교부세 감액분 94억원을 조기 상환해 올해 현재 순지방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군은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 재정적 개혁을 단행한 결과, 당초 상환기간인 2027년 보다 9

년이나 앞당기고 이자액 등을 절감해 재정수입 증대 성과를 도출해 냈다. 2018년 기준 7.5% 수준의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비 사업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연말까지 1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보다 58억원이 늘어난 4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11년 2,387억원이던 진도군 예산은 2018년 본예산 기준 창근 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한 3133억원을 편성했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우드랜드

## 장흥군 억불산에 75억 규모 ‘농촌테마공원’

농식품부 신규공모사업 최종 선정  
장흥군 억불산에 75억원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이 들어선다.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농촌테마공원조성 신규공모사업에 ‘장흥 농촌테마공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은 지난 17일 1차 현장확인, 23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장흥군을 2019년도 농촌테마공원 사업지로 낙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장흥군은 국비 등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천년을 이어갈 생명의 씨앗을 정남진에 담다’를 주제로 내세운 장흥 농촌테마공원은 산, 들, 바다 등 장흥의 3향을 바탕으로 한다. 18만7432㎡ 규모의 부지에 들어서는 테마공원에는 약선재료·표고버섯·무산김 체험장, 유기농 체험농장, 계절초화원, 수상안전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데에는 편백숲 우드랜드라는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점과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을 내세운 것이 큰 몫을 했다. 우드랜드가 갖고 있는 휴식, 치유의 자원과 농촌테마공원의 창의적인 체험활동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남 장흥=이진오 기자

## 잠시 앉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억하자

추모조형물 ‘오월결상’ 설치  
전남 목포역 광장·서울 기독교회관

‘잠시 앉아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끈 열사와 19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자’ 광주항쟁과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투쟁,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를 기리는 추모조형물 ‘오월결상’이 전남 목포와 서울에 설치된다. 올해 1월 15일 부산 도심에 설치한 1호 오월결상 이후 4개월 만이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인 오는 18일 목포역 광장에 2호 오월결상을 세운다. 오월결상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조형물이 아니라 잠시 앉아 사색하고 쉬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의자 모양으로 만든다. 건축가 양수인씨가 설계한 2호 오월결상은 정부가 현재까지 인정한 5·18 희생자 164명을 형상화한 기둥이 도넛 모양 의자 상단을 떠받친다. 5·18희생자의 헌신으로 민주화를 이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 설치하는 3호 오월결상은 김의기 열사를 기억하



목포역 광장에 설치 예정인 오월결상 조감도

며 30일 설치한다. 김 열사는 만 21살 나이로 서강대학교 재학생이었던 1980년 5월 30일 5·18 희생자 넋을 기리고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며 이 자리에서 투신했다. 5·18재단과 오월결상추진위원회는 설치 장소가 지닌 역사 의미에 따라 다른 디자인으로 결상을 설계하고 있다. 현장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3호 오월결상은 작가 선정과 디자인이 기획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재단과 오월결상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녀상처럼 5·18

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으로써 전국 100여곳에 오월결상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월결상추진위는 서울광장 또는 광화문광장 등에 새로운 오월결상을 세우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제작과 설치를 위한 시민 모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30여년 전 민주항쟁을 이끈 노동자 황보영국 열사를 기리며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인근에 1호 오월결상을 설치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 광주 주택가격 지난해 보다 ‘5%’ 상승

광주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보다 5% 넘게 상승했다. 특히 동구의 주택가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8%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개별주택은 전년 8만 5162호보다 479호 감소한 8만 4683호이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62% 상승했다. 구별로는 동구가 7.82%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서 남구 7.02%, 광산구 6.77%, 서구 4.16%, 북구 4.09% 순이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구도심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

발되면서 단독 주택은 감소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상승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재개발 예정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시 가격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 5가에 소재하는 주택(60억 4000만원)이고, 최저가(339만원)는 동구 학동 소재 주택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주택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광주=김남중 기자

## 고흥소방서 어린이날 119안전체험

고흥소방서는 오는 5월 5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소방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행사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 연기소화기 체험, 퍼즐맞추기 등을 통한 소방안전상식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및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전남 고흥=김남중 기자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맛있고, 간편하고!... “봄 소풍 기쁨을 두배로”

# 나들이 위한 ‘피크닉 메뉴’ 인기

본격적인 봄을 맞아 캠핑이나 봄 맞이 소풍을 떠나는 나들이족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편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푸짐한 피크닉 메뉴가 주목을 받는다. 야외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는 한식도시락부터, 치킨, 김밥 등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나들이족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들을 선보이거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크닉 메뉴로 단연 인기 아이템은 치킨이다. 치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야외 먹거리다.

bhc는 나들이의 메뉴로 ‘뿌링클’과 ‘갈비레오’를 제시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 간장의 짭조름한 맛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호를 맞출 수 있다. ‘뿌링클’은 치킨 위에 블루치즈, 체다치즈, 양파, 마늘이 함유된 매직 시즈닝을 뿌린 제품이다. ‘갈비레오’는 bhc가 직접 개발한 소스로, 갈비구이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서기치킨은 매운 누들떡볶이와 치킨의 케미를 완성시켰다. 치킨버거, 치킨랩, 치킨 브루스케타의 소스와 함께 매운, 아주매운, 갈릭, 겨자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서기치킨은 100% 국내산 신선육(닭고기/순살)을 사용하며, 모든 메뉴를 주문과 동시에 조리해 시작해 맛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다.

떡볶이전문점 결작떡볶이는 떡볶이와 치킨을 결합한 치떡 세트와 야외 나들이족의 입맛을 잡았다. 후라이드부터 레몬크림새우치킨, 간풍치킨, 양념치킨 등 메뉴도 다양하다. 결작떡볶이는 또 국물떡볶이, 부대떡볶이 등 색다른 메



나들이 고객 맞춤 김밥·도시락 등을 제공하는 김가네 김밥. /김가네

**■ 치킨**  
bhc ‘뿌링클’ 소풍메뉴로 제격  
서기치킨 떡볶이+치킨 케미 인기

**■ 이색메뉴**  
마스터통삼겹 깔끔한 삼겹정식  
스시노백세프 풍미 가득한 초밥  
본도시락 나들이 이벤트 진행

뉴도 갖추고 있다.

치킨에 이어 김밥도 피크닉의 대표 메뉴다. 김가네의 ‘김가네 김밥’은 우영, 당근, 지단, 시금치, 어묵, 햄, 맛살, 단무지 등 8가지 재료를 두툼하게만 썬 김밥으로, 사각 포장 용기에 정갈하게 담아 테이크아웃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외에도 체다치즈김밥, 멸치김밥, 버섯불고기김밥, 새우롤김밥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김밥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다. 도시락 메뉴도 있다. 나들이 고객에 맞춰 포장 용기를 마련해두고 있다.

정성만김밥은 숯불향 가득한 고기를 넣은 김밥이 장점이다. 여기에 아이와 여성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브리또를 추가해 봄철 색다른 입맛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겹살도 야외에서 간단히 즐길 수 있다. 삼겹살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마스터통삼겹은 잘 구워진 삼겹살, 목살, 석쇠불고기

**■ 분식**  
결작떡볶이 야외서 즐기는 ‘치떡’  
김가네 정갈한 김밥·도시락메뉴  
정성만김밥 숯불김밥·브리또

등과 찌개, 채소, 반찬, 밥 등을 깔끔하게 포장해 준다. 본사 직영 공장에서 220도로 초벌 훈연돼 매장에 공급되고, 매장에서는 1300도 직화로 2~3분 내 조리해 제공된다.

야외에서 색다른 메뉴를 즐기기에 초밥도 괜찮다. 수제초밥이 맛있는 집 스시노백세프는 저가형의 기계식 초밥이 아닌 셰프가 직접 만들어주는 초밥으로 고객의 입맛을 잡고 있다. 특정은 일반적인 간장소스를 찍어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크림으로 만든 생와사비 특제소스로 색다른 매운 맛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크림소스가 더해지면서 매운 맛을 중화시키고 독특한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나들이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본도시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봄을 맞아 가족 소풍이나 회사 야외회를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봄엔 본도시락, 단체 도시락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단체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증정, 식혜 증정, 맞춤형 슬리브 제작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본아이에프는 B2B 영업팀을 정식 부서로 신설해 기업제휴나 단체영업을 확대하고 대규모 주문 및 제품 공급 건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bhc의 ‘뿌링클’

## 까사미아, 가정의 달 맞이 ‘가족선물전’

까사미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1일 밝혔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 (사진), ‘헤링본 4인 테이블’, ‘소마 식기 시리즈’, ‘노아 키즈룸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는 천연 가죽과 스틸 다리를 조합한 모던한 디자인이 장점이다. 등받이와 머리받이 각도 조절, 회전이 가능하다. 수동 리클라이너인 이 제품은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마음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선물로 꼽힌다.

우스터 1인 리클라이너는 까사미아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오는 8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까사미아의 ‘헤링본 4인 테이블’은 집안에서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았다.

헤링본 4인 테이블은 까사미아의 대표 인기상품으로 북고풍 빈티지 디자인의



트렌디한 다이닝 컬렉션으로 고객에게 꾸준히 인기가 높다. 헤링본 패턴을 테이블 상판에 살려 편안함과 아늑함을 집안에 담을 수 있다.

5월 정기행사 기간 동안 ‘노아’, ‘앤디’, ‘블레이’ 키즈룸 시리즈의 침대와 책상을 동시에 구매하면 드림 클라우드 매트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이대목동병원 치과 주민 위한 건강강좌 개최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 치과가 오는 14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강서·양천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골다공증 환자 및 유방암 수술 후 뼈주사 환자에서의 치과 치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김선종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사진)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유방암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가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환자와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악골과 사질 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강좌는 별도 신청없이 무료로 참석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파로몬트스·센스다인 치약 세트를 제공한다. /\*박인용 기자



## 중소 최대 행사 ‘중소기업인 대회’ 올해도 대통령 자리는 ‘공석’으로

文 대통령 외교일정으로 불참 전달 2년째 불참...이낙연총리 대신 참석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에도 대통령 없이 치러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대회는 2년째 대통령 불참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대회가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소기업계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는 이낙연 총리가 자리를 함께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주말에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숨겨진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5월 중순을 전후해서 한반도 문제를 놓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잇따라 치러야 한다.

9일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이달 중하순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전망이다. 당초 6월로 관측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5월

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도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주변국들과의 외교전에도 속도를 높일 수 밖에 없어 과거 대통령이 당연하게 참석했던 중소기업인대회 같은 행사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08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한 중소기업인대회는 2009년부터는 아예 대통령 주관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렸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6년에도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해에는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격변기를 맞으면서 매년 5월 셋째주에 치러지던 중소기업인대회가 연말로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중순에 열린 중소기업인대회는 대통령→국무총리→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각각 참석자가 바뀌면서 결국 장관급 행사로 진행됐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는 등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참석을 학수고대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고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을 다독였다. /\*김승호 기자 bade@



소상공인연, 고용노동연수원과 소상공인 노동법 교육 ‘맞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인 고용노동연수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사이버 교육 및 노동법 상식 웹툰 제작, 연수원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노무 관련 의식 함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왼쪽)이 고용노동연수원 전운배 원장과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 “청년창업가 육성”... ‘위 스쿨 3기’ 발대식

코웨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코웨이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가치창출 프로그램인 ‘코웨이 Wi School(위 스쿨) 3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코웨이 위 스쿨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기업이 보유한 사업 노하우 및 경험을 전수하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30여 개 청년 창업팀이 포함된 이번 3기에는 환경가전 및 뷰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창업 아이템 공모전과 창업 전문가들의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 코웨이 이해선 대표를 포함해 코웨이 임직원들이 전문 멘토링도 실시한다.

이해선 대표는 발대식 후 열린 창업 교육에서 “창업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



코웨이의 스마트 환경가전 청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위 스쿨(Wi School) 3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며 “코웨이 위 스쿨은 회사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나눠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오는 7월21일 청년 창업가들이 약 3개월 동안 발전시켜 온 비즈니스 아이템 발표를 갖고 심사를 거쳐 우수자들에게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홈쇼핑업계, 1분기 무난한 실적... T커머스·모바일 전인

**CJ오쇼핑** 합병 효과로 외형 성장  
**GS홈쇼핑** 분기 취급액 첫 1조 돌파  
**현대홈쇼핑** 모바일 사업 개편 성장세



홈쇼핑업계가 올해 무난한 출발을 예고했다. 업계 1위로 우뚝선 CJ오쇼핑은 CJ E&M 합병효과가 더해져 외형 성장을 이뤘고 GS홈쇼핑은 분기 취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달 초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현대홈쇼핑 또한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1분기 9998억원의 취급고와 43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취급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하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분기 취급고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1.9% 올랐다.

우선 수익성이 높은 패션 브랜드 매출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CJ오쇼핑은 셀

랩샵, 장미헬바스키아, VW베라왕 등의 패션브랜드들을 선보이고 있다.

T커머스 성장도 눈에 띈다. CJ오쇼핑은 지난 1분기 T커머스 채널의 기획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 T커머스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 52.2%(723억원) 성장했다.

모바일 채널을 통한 TV상품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J오쇼핑의 모바일

취급고는 전년 대비 20%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선보인 모바일 라이브방송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취급고 호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0.9%) 감소했다. 올해 1분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카드청구 할인, 무이자할부비용 할인과 같은 고객 프로모션 비용이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CJ E&M과의 합병을 통한 미디어 커머스사업에도 기대감이 높다. 최근 CJ오쇼핑은 tvN 코미디빅리그 출연진들이 진행한 '코빅마켓', 슈퍼주니어가 출연한 '슈퍼마켓' 시즌2 등이 큰 화제를 모기도 했다.

정명찬CJ오쇼핑 경영지원담당은 "1분기에는 상품과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형과 수익 모두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으며 TV홈쇼핑 및 T커머스에서 선보인

차별화 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미디어 커머스 시작점을 다졌다"며 "2분기에는 시즌상품의 선제적 편성과 E&M과의 합병 시너지 가속화를 통해 외형과 수익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홈쇼핑은 지난 1분기 취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8.7% 신장한 1조749억원, 영업이익은 29.5% 감소한 31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578억원으로 4.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66억원으로 38.6% 늘었다.

GS홈쇼핑도 모바일 사업 성장세가 눈에 띈다. 전체 취급액 1조749억원 중 4663억원이 모바일 쇼핑에서 발생했다. 모바일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 사업 역량을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하며 TV상품과 연계한 모바일 쇼핑을 강화한 결과다.

해외사업과 벤처투자 등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가 재무적인 성과를 내며 당기순이익은 큰 폭 늘었다. 전년도에는 해외 사업에서 손상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중국 합작 홈쇼핑을 통해 배당 수익이 발생했다. 앞서 GS홈쇼핑은 간편결제 전문업체, 반려동물 관련기업 등 미래 전망이 밝은 국내의 벤처기업에 꾸준히 투자를 단행해왔다.

GS홈쇼핑 관계자는 "플랫폼 의존적이었던 홈쇼핑의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을 위한 GS홈쇼핑의 투자활동이 사업적인 시너지뿐 아니라 재무적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이달 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자체상표와 단독 상품 등 상품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에 한 몫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념 간장게장 무료제공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큰기와집 한상에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수확한 서해 봄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00억 냉동밥 시장 '비비고'가 이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냉동밥' 인기폭발  
 전문점 수준 맛품질로 매출 500억 목표



국내 냉동밥 시장이 최근 3년새 200% 이상 성장하며 차세대 가정 간편식(HMR) 카테고리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200억 원대였던 냉동밥 시장은 지난해 700억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김치볶음밥, 새우볶음밥 등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외에 메뉴가 다양해지고, 외식에서 즐기던 전문점 수준의 맛품질을 갖춘 제품들이 속속 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료 준비와 조리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프라이팬에 볶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간편성과 맛품질, 합리적인 가격도 주효했다.

올해도 냉동밥 시장 성장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누계(링크아즈텍 기준) 시장규모는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다양한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냉동밥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어 올해 냉동밥 시장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냉동밥 시장 1위인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냉동밥'을 앞세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비비고 냉동밥'은 지난해 330억원 매출(소비자가 환산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의 누적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냉동밥'의 인기 비결을 차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구현한 전문점 수준의 맛품질로 보고 있다. 2015년에 출시된 '비비고 냉동밥'은 은은한 불맛과 고슬고슬한 밥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맛품질을 높여 냉동밥 시장 1위를 달성했다.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장한 것도 큰몫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곤드레 나물밥, 취나물밥 등 나물밥 제품을 출시한 이후 불고기비빔밥, 낙지비빔밥, 새우볶음밥, 닭가슴살볶음밥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CJ제일제당은 올해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여 '비비고 냉동밥'의 매출을 500억원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지난해 2위 업체인 풀무원과의 시장점유율을 15% 벌린 데 이어 올해는 20% 이상으로 격차를 더 벌릴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600억 투자 '스마트 푸드센터'로 재도약

현대그린푸드 '종합식품기업' 선언  
 '스마트 푸드센터' 내년 완공 예정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전문기업인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대표 '종합식품기업'을 목표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현대그린푸드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1만5914㎡ 규모의 부지에 '스마트 푸드센터' (가칭)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과 더불어 식품제조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최신식 식품 제조시설을 갖춘 스마트 푸드센터는 연면적 8264㎡(2500평) 규모로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분기 중 완공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토지 매입과 공장 신축 등에 총 6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린푸드는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상반기 '단체급식용 PB제품'과 더불어 '건강 테마 HMR(가정간편식)인 Greating 상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로써 현대그린푸드는 하루 평균 약 40만명본인 100톤, 연간 최대 3만1000톤의 식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스마트 푸드센터에는 최신식 식품설비와 기술도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대형 솔을 이용해 전자동구이 및 볶음 요리가 가능한 '자동직화설비', 낮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식재료를 해동하는 '진공해동기술', 산소 접촉을 차단시켜 음식 선도를 유지하는 '진공수축설비' 등이다.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 전경(위)과 식품위생연구소 모습. /현대백화점그룹

또 현대그린푸드는 스마트 푸드센터 내에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연화식 상품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전용라인을 갖추고 '그리팅소프트'라는 브랜드로 백화점 등 유통 채널을 비롯한 온라인 등에도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연화식은 일반 음식과 모양과 맛은 똑같지만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씹거나 삼키기 좋게 만든 음식으로 치아 등 구강구조가 약한 고연령층 및 유아동이 섭취하기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내에서 '식품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그룹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공산

품, 생식품을 유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열사와 공동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PB상품도 선보였다.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HMR 브랜드 '원테이블'과 현대홈쇼핑의 스타셰프가 참여한 'H-PLATE' 등이 현대그린푸드가 공동 개발한 상품이다.

현대그린푸드는 이번 스마트 푸드센터 구축을 기점으로 사내 R&D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품질 등을 개선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생산기지'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푸드센터 구축은 국내외 식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B2C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단체급식서비스와 식자재 유통사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건강해지기 위한 먹거리'라는 차별성을 내세운 HMR 제품 출시로 향후 5년 내 매출을 3조원대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이마트 "선물세트 구매로 기부하세요!"

'피코크 스낵세트' 1+1 기부 캠페인

이마트는 5월 한달간 조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손잡고 '피코크 스낵 선물세트' 1+1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행사 기간 고객이 이마트에서 피코크 스낵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이마트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동일 수량의 피코크 스낵 선물세트를 기부하는 형태로 코즈

마케팅을 도입한 사례다.

피코크 스낵 선물세트는 나초칩 오리 지날, 스위트&솔트 팝콘, 씨솔트카라멜&크림치즈 팝콘 등 주요 스테디셀러 상품은 물론 건강을 생각한 렌틸칩을 포함해 총 7종의 상품으로 구성했다. 5000개 한정수량에 판매가격은 1만원으로, 날개 상품 구매시 대비 15% 가량 저렴하다.

한편 이마트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



널을 활용해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3일자 전단광고에 관련 내용을 담은 한편 매장 내에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는 ISP(In Store Promotion)를 설치한다. 온라인 상으로도 피코크 홈페이지, 얼리이머터 블로그, 이마트 앱 등을 활용해 프로모션 알리기에 나선다.

/김유진 기자



# 이미경 CJ 부회장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선정

###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 올려

CJ그룹은 이미경 부회장이 세계은행 산하 여성기업가기금(We-Fi)의 지지 확보 활동을 펼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챔피언(그룹 참여 멤버 지칭) 16명 중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여성기업가기금 We-Fi는 개도국 여성기업가들에게 금융·기술·네트워크 기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기금으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이방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이 제안,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서 여성 분야 주요 성과로 채택되면서 기금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통해 공식 출범했다.

We-Fi ‘리더십 그룹’ 챔피언은 기금 사무국이 여성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운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각 국가들로부터 여성기업인

들에 귀감이 될 만한 글로벌 여성 리더를 추천받아 선정됐다.

이미경 부회장을 비롯해 크리스틴 라카르트 IMF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리마 빈트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등 정부 및 국제기구 인사, 미국의 앤 피누케인뱅크 오브 아메리카 부회장, 일본의 카오리 사사키 ewoman 회장 겸 CEO, 호주 게이일 켈리 前 웨스트팩그룹 CEO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민간 분야 리더 등 총 16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CJ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글로벌 한류 확산 역할 및 이미경 부회장의 글로벌 경제·문화계 네트워크 등 영향력을 고려해 추천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의 여성기업인들이 더욱 활발히 경제활동을 펴고 이로써 세계경제가 더욱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홍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SK이노베이션 일상 속 혁신 아이디어 공모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월 론칭한 기업PR 캠페인 ‘세계가 이노베이션 한다’를 주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이노베이션이 확산될 수 있는 ‘일상 속 이노베이션 한 줄 아이디어’ 공모전을 1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한 줄 아이디어라는 쉬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벤트 자체도 혁신이 되도록 기획했다.

일상 생활에서 이노베이션(혁신)을 실천한 사례나 세상을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 심사한다.

공모작들의 참신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에게는 기업PR 캠페인의 주 소재였던 구글어스 지도가 표현된 자체 제작 기념품인 고급 우산을 증정하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SK이노베이션 SNS 콘텐츠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우리는 청원경찰 등 숨은 공로자에 감사패 전달

우리는행은 지난달 30일 손태승 우리는행장이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은행의 숨은 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손 행장은 은행의 청원경찰, 환경미화직원, 시설관리 직원, 우편집중실 직원 등 160여 명을 초청해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오찬을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찾아주고 현금인출 방법을 안내한 청원 경찰의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그 주인공과 각 업무별 대표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숨은 공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와 온수매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행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이며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원들이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린다”며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올 투게더 우리(All Together Woori)’



손태승 우리는행장(왼쪽 세번째)이 청원경찰, 시설관리직원 등 숨은 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행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NH농협은행 올원뱅크 ‘음성뱅킹’ 서비스

NH농협은행은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뱅킹’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음성으로 올원뱅크 내 원하는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간편송금’과 ‘자주쓰는 송금’에서 각각 수취인 정보를 미리 등록한 후 이름만 말하면 편리하게 송금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원커뮤니티’를 신설해 올원뱅크 내에 사용자리뷰 및 활용팁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개인 커뮤니티로 공유할 수 있도록 ‘SNS 공유하기’ 기능을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각종 모임개설과 회비 내역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생활 속 모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김민조의 운세

5월 2일 (음 3월 17일)

민조 역학 학당(02-713-8207 www.kimminjo.co.kr)

- 48년생** 물이 아프거나 아는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60년생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대접 받을 일이 있다. 72년생 기쁨에 들떠서 말실수를 하여 낭패를 본다. 84년생 친구와 다투거나 삼각 관계가 생긴다.
- 49년생** 벌일도 아닌데 공연히 마음이 상한다. 61년생 부인과 다투거나 들어올 돈이 안들어와서 곤란해진다. 73년생 나쁜 일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85년생 지인이 돈을 빌려다라고 하거나 약속된 돈이 안들어온다.
- 50년생** 돈이 들어오거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62년생 기쁜 일이 있으나 과음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74년생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 86년생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된다.
- 51년생** 우연히 만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63년생 마음이 상하거나 다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라. 75년생 돈 쓸 일이 있거나 주변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있다. 87년생 문서로 인해 시끄럽지만 해결된다.
- 52년생** 식욕이 생기고 과식할 일이 있다. 64년생 주변 사람과 경쟁해야 할 일이 있다. 76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있거나 과식을 해서 소화가 잘 안된다. 88년생 다치는 수가 있으니 매사 조심해라.
- 53년생** 말로 상처를 받거나 감기 조심해야 한다. 65년생 주변에 친한 사람의 모함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77년생 생각하지 않게 계약이 성사되거나 좋은 소식을 듣는다. 89년생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좋은 정보를 듣게된다.

- 54년생** 친구들과 어울려서 회포를 풀일이 있거나 내기를 할 일이 있다. 66년생 열 받는 일이 있거나 몸살로 고생한다. 78년생 다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90년생 여자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다툼에 일을 저질른다.
- 55년생** 사이가 나뉘었던 사람과 화해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67년생 주변 사람에 의해 돈이 되는 정보를 듣게 된다. 79년생 부부사이가 좋아지고 화합을 하게 된다. 91년생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 56년생** 마음이 무겁고 힘드네 외출할 일이 생긴다. 68년생 감투를 쓰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 80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는데 나날 일도 생긴다. 92년생 사람들과 어울려서 회포를 풀 일이 있다.
- 57년생**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69년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자랑할 일이 생긴다. 81년생 돈이 들어오거나 여자를 만날 일이 있다. 93년생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
- 58년생**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과 화합하게 된다. 70년생 지체되었던 돈이 들어오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된다. 82년생 기쁜 일이 있는 가운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다. 94년생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 59년생** 자식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소식을 듣게 된다. 71년생 부부 사이가 좋아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83년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고 먹을 복이 있다. 95년생 지인과 말다툼이 있으나 오해를 풀고 화해하게 된다.

## 김상회의 4季

### 기도와 선(禪)

우리가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인생살이에 워낙 고난이 많다보니 초자연적인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 보겠다는 생각이 일차적일 것이다. 조금 더 인식의 지평을 넓힌 사람이라면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마음자리 생각 그리고 직관과 예지로서 삶의 실체를 규명하고픈 형이상학적인 욕구 때문이리라. 한국은 대승불교 안에서도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이 훌륭하다. 그러나 출가승이 아닌 다음에 선(禪)수행을 제대로 하기란 쉽지가 않다. 일반 재가불자라 할지라도 종교심이나 신앙심에는 단계가 있는 법 초발심을 낸 분들께 필자가 권유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 싶다. 종교심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선 마음을 가다듬고 반듯이 앉아 두 눈을 감아본다. 완전히는 감지 않은 채 정면 아래쪽을 응시해도 좋다. 가부좌가 편치 않다면 반가부좌를 하고 어깨를 편안히 늘어뜨려 본다. 허리만큼은 의식적으로라도 반듯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은 힘이 드는 것 같으나 조금만 반복해보면 이 자세가 가장 지구력이 생기게 해 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면 눈을 감으면 웬 잡생각이 그리도 많이 떠오르는지 불편해지면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정도다. 미리 낙담하지 마시라. 이것 또한 과정인 것이다. 초심자가 처음부터 가부좌를 하면서 참선이라 이름붙이기 뭐하다면 잠시 명상이라 이름 붙여도 좋다. 그러나 규칙은 있어야 한다. 하루에 5분씩 삼일이나 일주일일 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조용한 자신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를 보내기가 찝찝해진다. 맨 처음부터 무념무상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하루의 일과를 눈을 감고 곰곰이 돌이켜 본다든지 하는 맘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음속에 각오나 발원을 가져본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있다면 항상 가피만 받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도 이겨나갈 힘을 키우고 혹여 내가 받은 가피를 인연 닿는 그 누군가에게도 되돌려 줄 수 있기를 더불어 발원하는 것이 바른 신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다. 불가에서는 이를 ‘회향(回向)’이라 말하는데, 이 회향이 없이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암체 심보이자 공짜를 밝히는 일이다.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주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자 축복이란 것을 지혜가 열린 사람은 알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4		8			
6		4			5			9
	5			8				9
8			9	6	5			2
	9		1		7			8
9				5				6
	2							7
		8	7		1	9		

			9		5			
			4		7			6
	7							1
	8			5				4
		3	4		6	9		
	1				9			7
	4			8				9
		8	7			9	1	
1	2			6				8
							8	5

스도쿠 정답								
4	5	6	1	2	3	8	9	7
7	8	9	6	7	5	2	1	3
9	2	1	8	5	9	6	4	7
5	8	9	2	1	3	7	6	4
2	7	1	5	9	6	8	4	3
1	6	7	8	2	9	5	3	4
6	1	5	2	3	4	7	8	9
3	9	2	8	1	7	6	5	4
8	4	7	9	6	5	1	2	3
5	8	1	7	9	6	2	1	3
7	9	1	6	2	3	8	5	4
4	6	2	1	8	5	7	9	3
9	2	5	8	6	7	3	1	4
8	2	6	9	1	7	4	5	3
1	7	4	5	2	9	8	6	3
6	1	7	2	8	9	5	3	4
2	5	9	8	1	7	6	4	3
4	8	5	7	6	1	9	2	3

문제 제공= 보누스



# ‘장내세균’ 비만과 성인병 유발



**김래영** 원장  
**건강관리**

서구화된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습관이 현대인의 장(腸)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체에는 체세포 수만개보다 다양하고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한다. 특히 음식물의 소화·흡수·배설을 담당하는 장 속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80%가 분포되어 있으며, 무려 500여종에 달하는 100조개 이상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1.5kg에 달하는데 몸이 이로운 면역세포, 즉 유익균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져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장이 건강해야 오래산다. 예로부터 ‘장이 건강해야 오래산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도 신경세포가 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가 바로 장

이기 때문이다. 장 속에는 약 1~1.5kg에 달하는 유익균(25%)과 유해균(15%), 중간균(60%)이 존재하며, 서로 적절한 조화를 이뤄 장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익균은 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배설, 혈액으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 유익균보다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체내 독소를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트려 변비, 소화불량, 비만, 고혈압, 당뇨, 아토피 등 자가면역질환이나 대사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바라기 균’이라 불리는 중간균은 장내 환경에 따라 우세한 쪽으로 합류하는 습성이 있어 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으로 역할이 바뀌고, 유해균이 많으면 유해균으로 기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유익균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인과 장내 세균의 다양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려서부터 항생제와 같은 약물오남용이나 스트레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에 노출될 경우 장내세균의 균형을

깨트려 유해균이 과다 증식하게 된다.

또 나트륨 함량이 많은 고지방 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각종 대사질환을 비롯해 고도비만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식습관과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만성변비나 소화불량에 시달린다거나 남들과 비슷하게 먹는데도 살이 더 찌는 것 같고 때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면 장해독 요법을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다.

장해독 요법은 장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고 장에 유익한 소화효소와 장내세균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면역질환치료, 체중감량, 각종 질병 치료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오랜 임상결과 지방간, 고혈압, 복부비만 개선은 물론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이 수치로 입증되었으며,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 작용을 해 아토피 피부는 물론 고도비만이나 내장지방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주금공-부산교육청,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맞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부산시 교육청과 일자리 창출형 사회공헌활동인 부산형 돌봄 자람터 운영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형 돌봄 자람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부산형 돌봄 모델로 학교 안·밖에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시스템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왼쪽)과 부산시 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4월 30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형 돌봄 자람터 운영 지원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금공



**삼성전기, 어린이날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삼성전기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 세종, 천안, 부산 4개 사업장을 임직원 및 가족,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평소 보안이 철저한 사업장도 이날 하루는 임직원 및 가족들을 위해 놀이터로 변신한다.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높은 참여 요청으로 참가자 인원을 확대해 임직원과 가족 1만 여명이 참가하고, 회사 인근 지역 주민, 다문화 가정도 함께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 보편요금제 그늘에 시드는 알뜰폰



**기지 수집**  
**김나인**  
(산업부)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팽팽한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기가바이트(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으로 꼽힌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요금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이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애꿎은 알뜰폰 사업자다. 알뜰폰 사업자가 내세우는 경쟁력은 이름 그대로 ‘알뜰한’ 가격 경쟁력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CJ헬로의 경우 월 2만9700원에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 USIM 10GB’ 요금제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는 저가요금제 가입자를 타깃으로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타깃 고객층을 정조준한다. 이 용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이동통신사를 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 효과는 눈에 보이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알뜰

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번호를 옮긴 가입자가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간 가입자를 넘어서며 알뜰폰 사업 시작 이래 처음으로 ‘가입자 이동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가입자는 지난해 7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800만 가입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도매대가 특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편요금제로 수익에 타격을 입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상이 수월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그늘 아래 갈수록 시들해지는 알뜰폰 업계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silkni@metroseoul.co.kr



**NH협금융,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실시**

NH협금융은 지난달 29일 주재승 디지털금융 부문장을 포함한 농협금융 직원 40여명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찾아 봄철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디지털전략부문 및 안산시지부, 반월농협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했다. /농협금융



**유한킴벌리, 초등생 대상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유한킴벌리는 최근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올바른 미세먼지 대응 방법을 알리는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 첫 수업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마스크가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올바른 대응법을 알리는 ‘미세먼지 걱정 아웃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 인사

◆**방위사업청** △종합군수지원개발1팀장 기술서기관 이도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원장 정경희 △ 포용복지연구단장 김태완 △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세경 △ 연구조정팀장 송철중 △ 미래전략연구실장 노대명 △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장 김현경 △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 조성은 △ 사

회보장평가연구센터장 오윤섭 △ 사회재정분석추계센터장 고제이 △ 보건정책연구실장 신현웅 △ 보건의료연구센터장 윤강재 △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정영호 △ 미래질병대응연구센터장 서제희 △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 박실비아 △ 건강보험연구센터장 황도경 △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강신욱 △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이현주 △ 노동연계복지연구센터장 정은희 △ 공적연금연구센터장 정해식 △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여유진 △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 강혜규 △ 사회서비스연구센터장 함영진 △ 장애인복지연구센터장 김성희 △ 인구정책연구실장 김중훈 △ 저출산연구센터장 이소영 △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이윤경 △ 가족정책연구센터장 김유경 △ 아동복지연구센터장 류정희 △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장 오미애

◆**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 변무장 △능력평가이사 우봉우

## 부음

▲김성기 씨 별세, 이용우(카카오뱅크 대표이사)씨 장인상 = 4월 30일 오후 11시, 강원 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5월 3일 오전 9시. 033-610-5981

▲김장욱 씨 별세, 이동근(현대경제연구원장·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씨 모친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010-2000.

▲문옥연씨 별세, 이수형(태안군 공보팀장)씨 모친상 = 1일 오전,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3일 오전, 041-671-5303

## 현대홈쇼핑 오늘부터 사내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대홈쇼핑이 오는 2일부터 사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현대홈쇼핑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본사 1층에 ‘현대 홈키즈 어린이집(495㎡ 규모)’을 개원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 홈키즈 어린이집은 현대홈쇼핑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 중 만 1세에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시설로 각 연령대별 보육실과 실내·실외 놀이터 등 다양한 학습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녀를 편하게 맡기고 틈틈이 교감할 수 있도

록 본사 1층에 어린이집을 마련했다”며 “수준 높은 교육을 원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어문 교사가 상주해 있고 전문 독서 공간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정원은 최대 60명이다. 이는 만 1세~만 5세 자녀를 둔 현대홈쇼핑 직원(130명)의 약 50%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정규
편집국장	이정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기100206	
제3947호 / 0042호	



# 수시 '77.3%' 역대 최대... 서울 주요대 정시 인원 확대

## 2020학년도 대입전형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시행계획 발표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7866명  
학생부 선발인원 전년보다 1.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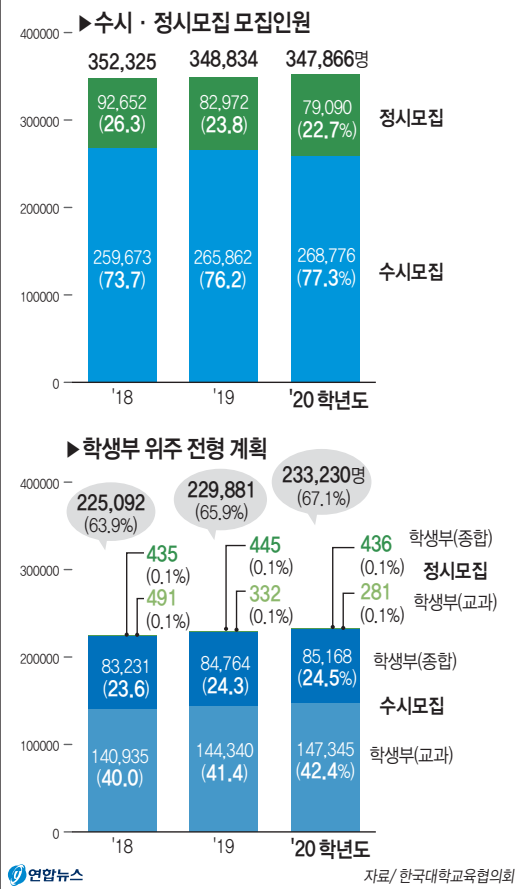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율이 역대 최대 규모인 77.3%로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 정시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증가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2020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전년보다 968명 감소한 가운데, 학생부 우수 전형인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6만8766명(77.3%)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수능 우수 전형인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7만9090명(22.7%)로 낮아졌다. 수시모집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모집 비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이후 지속 상승 추세다.

학생부 우수 선발비율은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에 이어 2020학년도에 67.1%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 고2가 치르는 내년 입시의 학생부 우수 선발 비율은 올해보다 1.2%p 확대된다. 전체적으로 수시모집 인원 중 86.5%는 학생부 우수 전형으로, 정시모집 인원의 87.6%는 수능 우수 전형으로 선발한다.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학생부종합전형선발인

##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원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2020학년도 학종 선발 인원은 8만5604명(24.6%)로 전년보다 0.2%p 높아졌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학종 비율도 2019학년도 43.6%에서 2020학년도 43.7% 다소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우수 33개 대학이 뽑는 논술 우수 전형 모집인원은 전년(1만3310명) 대비 1164명 감소한 1만2146명이다. 논술전형을 치르는 수도권 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등이 고, 지방대 중에서는 경북대, 부산대, 울산대 등이 논술전형을 치른다.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은 4만 6327명으로 전년 대비 2956명(0.9%p ↑) 더 뽑고,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전형도 83개교에서 1만6127명을 선발해 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논술전형은 감소한 반면, 정시모집 인원은 확대돼 상위권 학생들의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다. 대학별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요대의 정시모집 최종 선발인원은 4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지역 주요 10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모집 선발인원(정원의 포함)은 1만552명으로 전년(9238명) 대비 14.2%나 늘었다. 일부(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대학은 오히려 정시 선발비율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방 소재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2019학년도에 4만4714명에서 2020학년도엔 3만9756명으로 11.1%(4958명)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지역 주요대를 지원하는 상위권 수험생은 수능 위주로, 중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부 우수 전략이 필요한 셈이다.

주요 10개 대학의 논술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804명(15.7%) 감소했다. 대학별 논술 선발인원을 보면, 성균관대 363명, 이화여대 127명, 서강대 111명, 중앙대·경희대 각 56명, 한국외대 53명, 연세대 36명, 한양대 2명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연세대가 전체 전형에서 폐지했고, 서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폐지했으나, 나머지 주요대학들의 수시모집 수능최저는 전년과 같은 기조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중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학생부 비중이 커졌고, 상위권 수험생이 치르는 수도권 주요대의 경우 수능 비중이 확대됐다. 특히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감안하면 정시모집 인원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학년도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최종 선발 인원은 수시모집 이월 인원 발생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서울대 정시모집 인원은 당초 20.9%에서 26.1%로 증가했고, 연세대(28.0%→36.2%), 고려대(15.0%→19.6%), 성균관대(20.2%→25.4%), 서강대(24.3%→29.9%), 한양대(30.3%→31.4%), 중앙대(31.2%→33.3%), 경희대(27.2%→28.9%), 이화여대(26.1%→29.1%), 한국외대(35.9%→37.4%) 등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당초 25.5%에서 29.3%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대 지리교육과(72.2%)와 지구과학교육과(61.9%), 연세대 독어독문학과(63.3%)·경제학부(55.4%)·경영학과(51.6%)·수학과(55.3%) 등 일부 학과의 경우 정시모집 비율이 수시모집 비율을 앞질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주요대학 정시 선발비율이 늘었고,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불이익을 극복하는 논술전형이 축소돼 이들의 수능 중요도가 현재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3.7%~8.2%p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시 최종 선발이 30% 초반대 대학들의 경우 최종 정시모집 선발비율이 4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연세대 신학대 '원두우 정신으로' 토크콘서트 개최

연세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2일 낮 12시 원두우 신학관 채플실에서 '원두우 정신으로 혁신하라' 주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원두우는 연세대를 창립한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글 이름이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뇌분석 기반 창업혁신 시스템'으로 주목받는 브레인 OS연구소 안진훈 대표와 국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520여 명으로 구성된 CS

R포럼 김도영 대표, 아카데미라운지를 창업한 박상규 대표, ATK 크리스천 창업투자회사 노태경 대표, 슈퍼모델 박돌선 씨 등이 참가해 창업 경험을 나눌 예정이다.

권수영 연세대 신학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은 "청년들이 한국교회와 다양한 전문가와 만나 사회혁신의 꿈을 키우고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1분기 채용공고 4건 중 1건 '경력만 채용'

경력만 '52%' 모두채용 '13.4%'  
직종별 IT·전문직·디자인·경영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경력 채용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채용공고 4건 중 1건은 경력만 뽑는 공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올해 1분기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채용공고 55만3278건을 분석한 결과 '경력만' 채용하는 공고가 전체의 26.6%를 차지해 '신입만' 채용하는 공고(8%)에 비해 3.3배 많았다고 1일 밝혔다. '경력만 채용'은 52%,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 공고는 13.4%였다. 업종과 직종별로 IT 부문에서 경력 채용 선호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술력과 관련한 산업체 경험을 중시하는 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경력직 채용 비중을 보면, IT·웹·통신(47.1%), '제조·화학'(40.9%), '건설업'(35.3%), '기관·협회'(35.2%), '미디어·디자인'(33.9%), '의료·제약·복지'(28.4%), '판매·유통'(2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IT·인터넷(56.3%), '전문직'(47.3%), '디자인'(42.8%), '경영·사무'(37.5%), '건설'(36.7%), '생산·

제조'(32.3%), '유통·무역'(31.9%), '미디어'(27.1%), '영업·고객상담'(21.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신입만 채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8.3%)이 꼽혔다. 이어 '미디어·디자인'(7.9%), '기관·협회'(7.8%), '판매·유통'(7.6%), '제조·화학'(7.5%), '서비스업'(5.8%), 'IT·웹·통신'(5.7%) 등의 순으로 신입 채용 공고가 많았다. 신입채용 공고가 많은 직종으로는 '특수계층·공공'(8.9%), '생산·제조'(8.2%), '건설'(7.3%), '유통·무역'(7.3%), '전문직'(6.8%), '미디어'(6.6%), '경영·사무'(6.4%) 등이 꼽혔다. /한용수 기자

## 장안대 현장실습 협력사업 2년 연속 선정

스타일리스트와 패션디자이너 참여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 운영대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은 경기도 관내 대학을 선정해 학생 전공과 관련성이 있는 산업체 직무분야에서 견습생 또는 연수생 신분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장안대 학생들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받고, 기업들은 맞춤형 인재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참여학과는 스타일리스트과, 패션디자이너과로 장안대는 12개 협력기업에 파견할 졸업예정자 30명을 각 학과에서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지난해 장안대 학생들이 '대학생 기업체 현장실습 협력사업'에 참여해 현장실습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 /장안대학교

장안대 취업지원센터 주윤환 센터장은 "참여 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취업에 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직장생활 에티켓과 취업 마인드를 고취하게 될 것"이라며 "파견 학생이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상호간 높은 만족도로 장기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추진 절차 및 일정)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 수렴	공론화 범위 결정	공론화 의제 선정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협의)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4~5월	5월	6월	6~7월	7월	8월초

/자료=국가교육회의

## 대학입시개편 '첫 국민제안' 내일 충남대서

현재 중학교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듣는 자리가 오는 3일 오후 3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충남대 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

령)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열린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열린마당은 이날 첫 행사를 시작으로 10일(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 14일(부산 백스코 컨벤션홀), 17일(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잇따라 열린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자유발언과 서면,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도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주제토론포럼(www.eduvision.go.kr)을 통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마음 같아선 한 10개쯤 사고 싶은 국내 최초 분양! 세계 최대 브랜드 베스트웨스턴 호텔



**연간 1,000만 여명 방문의 명소! 1년 내내 비수기 없는 한옥마을**  
빅데이터 분석 결과 4계절 관광객 넘쳐나는 **대한민국 명소 중에 명소**

**전주는 1년 내내 축제!**

2.17	전주 한벽문화관 설날 문화축제
2.15~3.2	설대보름 맞이 전통문화축전
4.26~5.6	전주 국제영화제
5.5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축제
5.27~9.16	전주 문화재 여행
5.30~5.31	전주 단오제
7.27~7.29	전주 명품 복숭아콘잔치
8.4~8.6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8.10~8.12	가막축제
9.8~9.11	전주 대사놀이
9.23~9.24	전북 음식문화대전
10월 초	전주 세계소리축제
10월 중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10.26~10.29	전주 비빔밥축제
11.23~11.25	전북 청소년영화제

**1,100만 관광객!**

미래가 기대되는 전주 한옥마을의 배후수요! 출처: 전주시청

**최고의 호텔 글로벌 브랜드!**  
BW Best Western PLUS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체인으로 전세계 100여개국 4,200개 이상의 호텔 수

2017년 대한민국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로 선정됨

2017년 대한민국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관광지'로 선정됨

**부동산 세금폭탄 피해간~  
'레지던스호텔'이 답이다!**

**천만 관광객 잘 곳이 없다.  
특급 호텔 공급부족 전주시!**



- 1가구 2주택 해당없음** ★★★
- 양도세증과 해당없음** ★★★
- 종부세 해당 무** ★★★
- 공실 위험 없음** ★★★
- 분양권 전매 가능** ★★★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 전주호텔 PREMIUM 혜택

- 안심 보장제도**
- 호실당 8% 확정 수익 보장 (호텔 준공 시(1년 간))
  - 1년 치 월세 일시불 선지급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보증금 일시불 선지급 (호텔 준공 시)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수익보장 공증서 발행 (시행사: (주)메리트플러스 제공)

- 계약자 특별 혜택**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연 7일 무료 숙박 제공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부대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계약자 본인 및 지정인 포함) (운영사: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 제공)
  - 베스트웨스턴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객실 할인 혜택 (전국 6개 지점) (BGH 코리아 제공)

전주한옥마을 그 중심에 세계 최대 특급 호텔 체인  
베스트웨스턴 수익형 호텔 국내 최초 분양!

**문의 1566-9733**

청약계좌안내	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2-557865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	------------	------------------------	------------------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탁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전주 성벽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한강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충문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는 이와 무관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논란에도 **신기록** **흥행** **열풍** 마블의 역사는 지금부터

##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마블 영화중 개봉첫날 수익 1위  
한국에선 6일 만에 500만 돌파  
히어로 전원 출동에 관객 열광  
스크린독과점·번역 오역 논란

### ◆히어로 총출동에 관객 열광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신기록을 수립하며 마블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북미에서 개봉 첫날 무려 약 1억596만7000불수익을 거둬며 역대 개봉 첫날 오프닝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마블 영화 최고 오프닝 기록으로 종전 마블 작품 중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의 개봉 첫날 기록은 8442만4532불, '어벤져스'(2012)는 8081만3985불이었다. 역대 마블 영화 중 개봉 첫날 1억불 이상 수익을 달성한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개봉 영화 최대 평점 사이트 시네마스코어에서 A등급을 받으며 역대 최고 흥행과 호평을 모두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전세계에서는 단숨에 누적 수익 약 1억7850만 불 수익을 거둬, 월드 와이드 누적 2억8446만7000불을 기록하는 경이적인 무한 흥행 행보를 걷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새로운 조합의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렸다.



마블 스튜디오의 히어로가 총출동한다는 소식은 개봉 전부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며 개봉 6일만에 누적 관객 수 525만을 돌파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스칼렛 위치 등 기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활약한 히어로들이 전원 컴백함은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블랙 팬서, 윈터 솔저, 스타로드를 비롯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까지 새롭게 구성된 어벤져스 멤버들과 상상 그 이상의 스토리 전개가 팬들을 열광케 한다.

### ◆스크린 독과점·자막 오역 논란

경이로운 기록을 갱신 중이지만, 영화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과 자막 오역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개봉당일인 25일,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스크린 갯수는 2461개로, 전체 46.2%에 달했다. 상영 횟수는 총 1만1430회, 점유율은 72.8%였다. 함께 개봉한 상영 횟수 2위인 국내영화 '살인 소설'은 그보다 한참 떨어진 842회에 그쳤고, 점유율도 5.4%에 불과했다. 1위

와 2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는 것.

주요 시간대 상영은 물론, 일부 영화관에서는 새벽 시간대까지 상영해 일부 극장에서는 하루 종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만 상영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잘 나가는 영화만 팍팍 밀어주는 비정한 시장 논리가 영화 시장 생태계에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또 한가지 논란에 휩싸였으니 자막 오역이다. 번역을 맡은 박지훈 번역가가 영화 결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를 오역하면서 연일 관객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해석의 차이일 뿐, 자막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그래도 마블! 세계관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MCU)는 마블 코믹

스의 만화에 기반을 두고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가상 세계관을 말한다.

때문에 마블의 영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모든 영화 엔딩크레딧 끝에 쿠키 영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다음 작품에 대한 복선 또는 지난 작품과의 연관성이 깔려있다. 마블 영화를 더욱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해봤다. 순서는 페이지1~4로 나뉜다.

'페이지1'은 어벤져스 영웅들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그린다. '퍼스트 어벤져', '아이언맨', '인크레디블 헐크', '아이언맨2', '토르:천둥의 신', '어벤져스'가 페이지1에 해당된다. 각각의 히어로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벤져스 팀을 꾸리게 됐는지 과정이 담겼다.

'페이지2'는 마블 히어로와 어벤져스의 스토리 그리고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에 첫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의 내용을 그린다. '아이언맨3'를 시작으로 '토르:다크월드', '캡틴 아메리카:윈터 솔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앤트맨'이 해당된다.

'페이지3'부터는 어벤져스 팀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며 화려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닥터 스트레인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스파이더맨:홈커밍', '토르:라그나로크', '블랙 팬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이에 해당한다.

'페이지3'에서는 아직 3편의 영화가 남아 있다. 오는 7월 앤트맨의 새로운 이야기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하며, 캡틴 마블이 첫 등장하는 '캡틴 마블'이 내년 3월에, 그리고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속편인 '어벤져스4(제목 미정)'가 2019년 5월 개봉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네이버영화·포스터/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영유아 콘텐츠채널 '잉글리시 젬' 론칭

### CJ E&M 북미권 최신 콘텐츠 확보

CJ E&M이 5월 2일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 english gem(잉글리시 젬)을 론칭했다.

english gem은 2~6세 미취학 아동을 메인 타겟으로 현지 아이들이 즐겨보는 북미권 최신 영어 콘텐츠를 엄선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이다. english gem은 국내 최초로 TV, VOD, 모바일 앱이 결합된 차별화된 영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PBS, BBC 등 영미권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확보해 현지 아이들이 실제로 보고 즐기는 신규 에피소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뿐 아니라, 에미상(Emmy Awards) 수상작 등 프리미엄 콘텐츠 신작

들을 국내 최초로 방송한다. 애니메이션, 동요, 율동, 아트&크래프트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여, 현지 아이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배우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영유아 영어 콘텐츠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 gem은 론칭을 기념해 2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가입하지 않아도 English gem TV채널을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시청 프로모션과 함께 다양한 가입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 SK브로드밴드 Btv 187번에서, 3일 현대HCN 298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어 그 외 플랫폼에서도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준비 본격화

### 탁구·농구 등 7개 종목 '긍정' 의향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문화·예술·체육 부문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부터 구체화할 방침이다.

먼저 문체부는 정책기획관이 주재했던 '남북체육교류 태스크포스(TF)'를 1차관 주재로 격상한 한편, 이번 주부터 대한체육회와 남북 단일팀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단일팀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통일부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단일팀 추진이 경기 단체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진행된다면 혼선이 생기는 만큼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남북 단일팀 구성 의향을 묻는 1차 수요 조사에서는 아시안게임 40개 종목 중 탁구와 농구, 유도, 정구, 하키, 카누, 조정 등 7개 종목이 '긍정' 의향을 표한 바 있다.

체육회도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실행에 속도를 낸다.

단일팀 성사를 위해선 단계적으로 ▲ 희망 경기단체의 정확한 의사 확인 ▲ 북측과 단일팀 구성 논의 ▲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등 국제기구와 협의 ▲ 아

시안게임 출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희망 경기 단체가 요구하는 엔트리 확대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 파악하고,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OCA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단일팀이 성사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옛날에는 체육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도한 반면 OCA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일팀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6 | 해질 / 19:23

5월 2일  
음력 : 3월 17일

수도권 날씨  
21~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스포츠 한줄 News

▲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지휘봉을 내려놓은 **황선홍 전 감독**(사진)이 구단 SNS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 시즌 2승 4무 4패의 부진으로 팬들에게 퇴진 압박을 받다가, 지난 달 30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 '골프 여제' **박인비**가 2주째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2위는 평산산(중국), 3위는 렉시 토포슨(미국)이다.

▲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방문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2득점을 기록하고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졌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 선수들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으로 21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정상에 오른 **리디아 고**(미국)가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클래식에서 2연승을 노린다.

▲ 빅리그 재진입을 노리는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트리플A 구단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카이박스에서 뛰는 **최지만**이 내슈빌 사운즈(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산하)와 경기에서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 **황상운**이 2018 아시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 채용설명회도 SNS로... 롯데百貨 “내일 인스타서 만나요”

인스타 'lotteshopping'서 진행  
우수질문자 5명 1대1 상담기회  
직무 Q&A·근무 환경 등 주제  
인사담당 바이어 등 직접 출현



롯데백화점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은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스타 라이브(LIVE) 채용 설명회'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롯데백화점 하계 인턴 채용 설명회로 롯데백화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lotteshopping'을 통해 진행

을 극복하고 구직자의 대다수가 SNS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에 착안, 롯데백화점 인사팀과 마케팅팀이 협업했다. 특히 롯데백화점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던 기존 채용 설명회와 달리 현실적이면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인사 담당, 상품본부 바이어(Buyer), 디지털사업부 AI팀 직원 등이 직접 출현한다. 직무관련 Q&A, 채용관련 정보, 근무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 설명회는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로 질문하면 출연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면접 전형과 관련해 일반적

채용 설명회에서 접하기 힘든 세세한 정보나 근무 환경, 복지 혜택, 입사선배들의 면접 후기 등 롯데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이색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설명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오는 3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채용 설명회 중 우수한 질문을 한 5명에게는 16일 이전까지 채용 담당자 및 직무 담당자와 일대일로 상담하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에도 직원들이 직접 출현해 회사 소개, 직무특성 등과 관련된 채용 정보를 설명하는 10분 분량의 동영상 촬영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동영상은 페이

스북에서 하루 만에 조회수가 1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현재 총 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하계 인턴 모집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며 디지털 직무인 '일반' 전형과 MD 직무인 '스펙타클'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지난 3월에 선보였던 채용 설명회 홍보 영상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채용 설명회를 기획했다"며 "젊은층이 익숙한 SNS에서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서울지하철 '고객편의·안전성' 세계 최고

여객 10억명당 사망자수 0명 기록  
엘리베이터 가동률은 99% 달해

서울지하철이 고객 편의와 안전성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비스품질지표(SQI)를 집계한 결과, 여객 10억명당 총 사망자수는 0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0명 기록은 전 세계 주요 지하철 운영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홍콩 뿐이다.

엘리베이터 가동률은 99.41%로 홍콩 지하철(99.75%) 다음으로 높았다. 또 교통약자 1억 1동선 확보율은 90.2%로 세계 지하철 운영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100만 근로시간 당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1.09건으로 싱가포르(1.97건)보다 월등히 적은 수치로 1위에 올랐다.

공사는 안전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세계 지하철 운영기관과 비교가 가능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 12개를 추가 도입한다.

추가 도입된 국제 표준 서비스 품질 지표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

가하기 위한 '여객 10억명 당 총 사망자수'와 고객 이동 서비스 품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에스칼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가동률', '교통약자 1억 1동선 확보율', '공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여객 km당 온실가스 배출률', '여객 1인당 전력 소비량' 등이다.

공사는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 품질지표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8일까지 페이스북에서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공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안전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세계수준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해 꾸준히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정어리 떼와 군무 펼치는 '옥도넷'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바다탐험대 옥도넷, 바다조류 대소동'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코엑스 아쿠아리움은 오는 5일부터 8월31일까지 '바다탐험대 옥도넷' 캐릭터들이 정어리 떼와 군무를 펼치는 공연을 국내 최초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된다.

시는 66개 동이 추가로 찾동으로 전환해 전체 424개 동 중 408개 동(96%)에서 찾동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찾동은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확대 예방경찰관,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이 시범 사업을 시작해 문제 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찾동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노인 환자에게 보건소 내 상담팀이 의학 진

단과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는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단순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책, 예산 등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기구로 전환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찾동과 연계해 올해 17개 구 91개 동으로 확대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관과 자치구 내 찾동이 팀을 이뤄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주민 리더 양성과 같은 민관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찾동-복지관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도 올해 31개 동 12개 복지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라디오·음반 새 취미로 등장... '외식' 행복한 가정 상징

### 일제강점기 서울사람들 여가생활은?

역사 암흑기라 칭해지는 일제 강점기, 서울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여가 생활을 향유했을까.

서울역사편찬원은 일제강점기 서울사람(경성부민)들의 여가생활을 유형별로 조명하는 연구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대로변의 변화와 뒷골목의 유흥, 음반 산업과 기생출신 여가수, 영화 관람과 영화산업, 선술집과 음주의 위계, 여름철 여가활동인 수영과 수영장, 외식 문화의 형성과 경성의 향토음식, 오락장과 공인된 도박장 등 7개의 주제를 다룬다.

여가는 근대를 시작으로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개념이다. 위기감을 느낀 조선 총독부는 '교화'를 명목으로 다양한 여가 시설을 만들었다. 공원, 도서관, 운동장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극장, 영화관, 카페, 바, 당구장, 경마장 등의 유흥·오락 시설을 조성했다.

라디오와 음반이 새로운 취미로 등장했다. 외식은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문화현상으로 대두됐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가생활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경성역의 모습.

/서울역사편찬원

경성의 음반산업은 일본에 의존하는 식민적 산업구조로 성장했다.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레코드회사 간부들은 일본 제국에 의해 만들어진 '슬픈 이미지'라는 조선인의 심성을 마케팅에 활용해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

음주 문화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라졌다. 선술집은 후미진 골목에 위치했고, 요릿집과 카페는 번듯한 건물에 입주했다. 바와 카페를 통해 근대 일본 음주문화가 경성에 퍼져 나갔다.

한강 수영장은 여름에는 피서지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과 낚시터로 이용됐다. 인도교와 뚝섬, 서빙고 등지의 수영장은 하루에 2만~3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였다.

오락장은 일상의 피로와 고통을 풀고 익명성을 보장받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공공시설로서의 오락장의 등장은 도박의 출현을 수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은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구입을 원할 경우 신청사 시민청의 서울책방에서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책의 발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서울 사람들의 여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2천년 서울 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울역사 중점연구총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창의어린이 놀이터 20곳 추가 조성

50억 투입... 낡은 놀이터 18곳 재조성

서울시가 동네 낡은 놀이터를 창의어린이 놀이터로 바꾼다.

서울시는 올해 16개 자치구에 창의어린이 놀이터 2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 기구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놀이터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놀이터 20곳 중 18곳은 시비 5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나머지 도봉구 개나리

어린이공원과 노원구 마들체육공원은 민간단체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만든다.

양천구 양천근린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4일 가장 먼저 개장한다. 시는 24년이 넘는 야외 무대를 재생해 놀이 기능이 더해진 배모양의 기구로 만들었다. 놀이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와 비장애 아동, 저학년과 영유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은 향후 놀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반영, 발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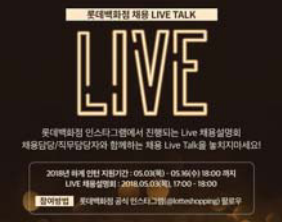


[금융]  
5대 은행장  
필리핀서 열리는  
'ADB연차 총회' 집결  
06



Life

[라이프]  
롯데백화점  
채용설명회도  
인스타그램으로  
L7



# “직접 만져보고 움직여보세요” 오감으로 체험하는 과학

## 되살아나는 서울

### 14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공존·생존·연결·순환 주제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체험물 전시

사용법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 부족... 개선 필요해

“모래를 이용해 지형을 만들어보세  
요” “카드를 손에 들고 좌우로 움직여보  
세요” “LED의 깜빡임에 맞춰 시작 버튼  
을 눌러보세요”

서울 노원구 충숙근린공원 인근에 문  
을 연 서울시립과학관에는 ‘눈으로만 보  
세요’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라는 경  
고문이 없다. 심지어는 관람객들에게  
‘만지고, 움직이고, 눌러보라’고 권하기  
까지 한다.

지난 22일 서울시립과학관을 찾은 아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앞에  
있는 전시물들을 만지작거렸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노원구 하계동에  
연면적 1만233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과학관에는 공존·생  
존·연결·순환을 주제로 한 4개의 전시  
관이 있다.

####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과학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생태·공존  
을 다루는 1층 G전시실은 사방이 초록  
색으로 칠해져 있다. 모래를 이용해 지  
형을 만들어보는 전시물 앞에서 다섯 명  
의 어린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옆에 있는 지진파-체험 전시물에는 네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다리가 땅에  
닿지 않는 의자에 앉아 화면 이곳저곳을  
두드려댔다.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  
시관 관리자는 아이들이 전시물을 가지  
고 놀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울시  
립과학관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전시관  
이 아닌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익히는  
체험관이다.

힘과 에너지의 흐름, 순환을 다루는 3  
층 R전시실에서는 두 명의 어린이가 팜  
을 뿔뿔 흘려가며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었다. 에너지 만들기 체험을 끝내고  
자전거에서 내려 김민서(12) 양은 “전  
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는지 몰랐  
다”며 “자기 전에 불도 잘 끄고 핸드폰도  
조금만 쓰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관 관계자는 “전시관에 ‘만지지  
마시오’ 같은 부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3층 R전시실에서 두 명의 어린이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 에너지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립과학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모래를 이용해 지형을 만들  
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진행되는 ‘3D 스페이스’ 체험 프로그램은 당일 티켓  
배부처에서 선착순으로 표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않고 있다”며 “직접 만지고 움직여보는  
체험물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현상을 관  
찰하고 생각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혼자가 아닌 두세 명이 함  
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시물들을 통해 지  
식과 인간관계를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사용법 모르는데... “도우미는 어디에?”

2층에는 인간의 생명 현상을 다루는  
O전시실과 구성 요소 간 네트워크 연결  
을 다루는 B전시실이 있다.

O전시실에는 특수제작된 렌즈를 통  
해 녹내장·황반변성·백내장 등의 안구  
질환을 체험해보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  
었다. 한참 동안 렌즈를 들여다보던 아  
이들은 소리 높여 “앞이 흐릿해” “지렁이  
가 보여”라며 즐거워했다.

반면, 체험물 사용법이 어려워 사람들  
이 찾지 않는 곳도 있었다. 볼마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해 세균을 관찰하는 ‘현미  
경으로 보는 작은 세계’나 사물의 온도

를 측정해 단위를 환산하는 전시물은 설  
명서를 읽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워 사람  
들의 발길이 뜸했다.

서울 중계동에서 온 황선영(35) 씨는  
“아기가 8살이라 어려운 건 빼고 쉬운 것  
만 해보려고 왔는데, 대부분의 체험물이  
난이도가 높아 재밌게 즐기기가 어려웠다”  
면서 “옆에서 사용법을 안내해주는 사람  
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과학관 관계자는 “서울시립과학관은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관이어서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다”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전시물도 기획하고 있으  
며, 연말까지 완성해 곧 선보일 예정”이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내 인원은 청소년과 성  
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확충할 계획”이  
라며 “과학관 안내 자원봉사자 도우미  
140여 명이 상반기 교육을 마치고 5월부

터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동구에서 과  
학관을 찾은 최철원(40) 씨는 “프로그램  
이 사전 예약제가 아닌 당일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모집 인원이 적어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시립과학관에서 진행되는 ‘전시관 해  
설’ ‘3D 스페이스’ ‘뇌파체험’ ‘오늘의  
이벤트’ ‘특별전시 해설’ 등 5개 프로그  
램 모두 전시실 내 체험티켓 배부처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받아야 참여할 수  
있었다. 회당 모집 인원이 8~25명으로  
적어 가족단위로 온 관람객들은 참여하  
기가 어려웠다.

과학관 관계자는 “과학관 수용 인원은  
300명으로, 체험 가능 인원은 80명”이라  
며 “과학관 규모의 한계도 있고, 전문인  
력도 한정돼 있어 프로그램 모집 인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